

## 26년도 3모에서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1. 독서

- #1. 사회(법)
- #2. 과학(생물)
- #3. 인문

### 2. 문학

- #1. 현대시 수필 복합
- #2. 고전시가
- #3. 현대소설
- #4. 고전소설



## 정지환 | 국어강사 @amukorean

“만년 4등급에서 시작해 수능 국어 1등급(백분위 99%)까지 올라선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칩니다.”

- 경인교육대학교 졸업
- 만년 4등급에서 18, 19년도 수능 1등급
- 22년도 수능 1등급 (백분위 99%)
- 국어 수업 7년차
- 오르비 북스 『문학 FOCUS』 저자

## 신요찬 | @med\_for\_yochan

“5등급에서 의대생까지, 3년간 평가원 시험 9회중 백분위 99 7회의 압도적 실력으로 수능 국어를 분석합니다.”

- 충북대학교 의예과 재학
- 24, 25, 26년도 수능 1등급 (백분위 99%)
- 대성마이맥 홍지운T 조교



# 26년도 의대, 서울대생을 배출한 바로 그 책!!

**실구매자 서평**

**김민석**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진학 예정, 2026학년도  
수능 국어 90점  
(25수능 백분위 64)

국어	국어	국어	국어
회법과 작문	회법과 작문	회법과 작문	회법과 작문
112	109	108	133
66	64	61	96
4	4	4	1

2023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2025학년도 수능    2026학년도 수능

이 책은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희망과도 같은 책입니다. 저는 '문제 풀이 능력'은 우수했으나 항상 문항에서 30분을 쓰며 8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매번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집을 풀면 잘 풀이됐으나 막상 실전에선 실력이 나오지 않은 채로 4등급의 향연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하다가, 조급함에 시야가 좁아져 이상한 선지를 선택하거나, 매번 한 지문을 몇 문 채로 끝나는게 일수였습니다. 분명 기술분석 많이 해서 발달 외를 경까지 갔고, 문제집 풀면 정답률이 좋게 나오는데, 라며 그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가 하나 건과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능 문항은 문제를 푸는 그 과정 자체도 실력이지만, 시험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며 실전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인지할 수 있고, 시험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의 부제 '최소 판단, 최소 이해'에 걸맞게 사고를 간략화하여 시간을 줄이게 되며 수능 문학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김민준**  
26년도 수능 1등급 (26년  
도 9월 모의고사 4등급)

국어	국어
회법과 작문	회법과 작문
112	134
68	96
4	1

2026학년도 9월    2026학년도 수능

4→1  
정지환국어  
문학포커스 1권!

선생님 덕분입니다  
기대정도가 좀 더 올라서 진짜 4→1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포커스 정말 최고의 교재였어요!  
- 실제 디영 내용

“문학을 논리로 해결하는 센세이션”  
많은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언어과목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법론 없이 본인의 글 읽는 힘만 활용해 수능 국어를 접근하려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국어는 감이다'나 '국어는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필자도 이 교재를 접하기 전까진 성적 변동이 심했고 모의고사를 칠때면 항상 긴장해 필자의 글 읽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교재는 첫장부터 문학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 덕분에 글 읽는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해설 역시 수험생의 눈높이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학습하기에 완벽하다. 시종 기술문제집 해설의 경우 단순히 왜 오답인지, 왜 정답인지만 알려주고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문학 FOCUS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선지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과외선 생님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결국으로, 수험생활 중 언제든 보아도 너무 완벽한 책이다. 수험생활 초반에 보아도 문학 문제풀이의 접근법을 배우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논리적이고 난이도 있는 아름다운 기술문제집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활 중반~후반에 보아도 문학문제풀이를 재정비하며 기술문항을 복습해볼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직도 수능 문학은 감이라고 생각하는가? 수능 문학의 본질을 꿰뚫는 정지환 선생님의 문학 FOCUS로 공부한다면 성적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믿어보아라! 필자의 경험에 증명한다.

원래 1등급이던 학생의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고정 4등급이 어떻게 1등급이 되었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문학 FOCUS』에서 확인해 보세요.

YES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77277359>

교보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9206206>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85659872>

오르비 북스

<https://atom.ac/books/13918>

## 이 교재를 제작한 이유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점수부터 확인합니다.

몇 개를 틀렸는지,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부터 따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시험은 그냥 한 번 치르고 지나간 일이 됩니다.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을 본 뒤에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왜 막혔는지 모르고,  
어디서 흔들렸는지 모르고,  
무엇을 기준으로 읽고 판단했어야 했는지도 모른 채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저 역시 그런 막막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국어는 열심히 한다고 바로 오르는 과목이 아니었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갑자기 선명해지는 과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적을 바꾸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푸는 일이 아니라,  
한 번의 시험에서 무엇을 배워 가느냐였습니다.

어디를 읽었어야 했는지,  
어떤 문장에서 멈춰야 했는지,  
무슨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했어야 했는지.  
그것이 남아야 비로소 실력이 시험에 드러납니다.

이 분석서는 단순히 정답의 이유만 적어 둔 해설지가 아닙니다.  
이번 3모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독해의 포인트와 문항 판단의 기준을 남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설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한 문제에서라도 내가 놓친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간다면  
그 시험은 다음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3월 모의고사는 끝났지만,  
그 시험에서 무엇을 남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분석서가 당신에게 단순한 복기 자료가 아니라, 국어를 보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해설지는 단순히 정답의 근거만 정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지점에서 막혔는지, 무엇을 남기며 읽어야 했는지, 그리고  
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는지를 함께 담아 보려 했습니다.

다만 해설은 읽는 것만으로 끝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여기서 흔들렸고,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픈할 **무료 특강**에서는 유사한 기출을 중심으로  
어디를 읽었어야 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을 그냥 한 번의 모의고사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해설지를 읽고 끝내지 말고 특강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어 강사 정지환

# 독서 (신요찬)

## 26년도 3모에서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1. 독서 (신요찬)

- #1. 사회(법)
- #2. 과학(생물)
- #3. 인문

### 2. 문학 (정지환)

- #1. 현대시 수필 복합
- #2. 고전시가
- #3. 현대소설
- #4. 고전소설



## 2026년 3월 학력평가 독서 영역 총평

### #1. 3모의 의미는 어디까지이고, 어떤 것들을 남겨가야 할까?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여러분이 수능을 향한 긴 여정의 첫 번째 이정표인 3월 학력평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3월 시험은 겨울 방학 동안의 학습이 얼마나 실력으로 쌓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수능까지는 아직 8개월이 넘게 남아 있고, 이후 6·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본시험까지 수차례의 이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3모 점수가 좋다고 해서 수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3모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수능이 망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점수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모에서 진짜로 챙겨가야 할 것은 성적표의 등급이나 백분위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의 데이터를 통해,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겨울에 진행한 학습에 구멍이 있어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결과를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3모를 그냥 “어차피 수능이 아니니까”라는 말로 흘려보내는 학생과, “이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나 자신에게 피드백을 해서 얻어갈 것이다”라는 태도를 가진 학생은 11월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정지환 선생님이 함께한 이번 2026 3월 학력평가 분석서가, 여러분의 피드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독서 영역 세트별 총평

\*편의상 세트 난이도를 (상/중상/중/중하/하)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9] : 뒤에 나오는 [10~13], 그리고 [14~17] 세트에 비하면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만한 세트였습니다. 난이도는 ‘중’으로 평가하겠습니다.

[10~13] :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입니다.

“지문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이해해야만 올바른 독해이다.”라거나, “펜을 대지 말고 이해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대단한 경지가 있고, 그 경지에 닿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만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일부 강사 또는 저자들은, 그들이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학생들을 현혹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스스로의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지문을 올바르게 해설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2026 수능의 <칸트의 철학> 지문이 이런 일부 강사와 저자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였고, 올해는 3월 학력평가부터 그들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설하지 않거나 교재에서 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수능 문제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도 모자랄 기출문제를 그렇게 하는 강사나 저자가 과연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문을 분석해 보면, 철저하게 평가원 지문 스타일을 기반으로 쓰여진 지문에 해당합니다. 저에게는 2023 6월 모의평가의 <비타민 K> 지문을 떠올리게 하는 세트였습니다.

지문의 정보량 자체는 <비타민 K> 세트보다 조금 더 많지만, 지문 독해를 하며 가져야 할 태도는 같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문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지문 해설 파트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번 문제 역시 <비타민 K> 지문의 ‘칼슘의 역할’과 관한 문제와 유사한 형식, 그리고 선지 판단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역시 <비타민 K> 지문의 <보기> 문제를 빼다박은 것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트가 어려웠다면 반드시 <비타민 K> 지문을 복습할 것을 권합니다. 난이도는 ‘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14~17] : 새로운 개념의 정의가 유독 많이 제시되는 지문입니다. 또한, ‘규범’이라던지 ‘인정’과 같이 분명

글자는 같은데, 어떤 사람이 정의한 개념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지문으로, 2024 수능의 <노자와 한비자의 도> 지문이 있습니다. 해당 지문에서도 '도'라는 같은 글자로 정의되는 개념인데도, '노자'가 정의한 '도'와 '한비자'가 정의한 '도'가 서로 다른 내용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트가 어려웠다면 반드시 <노자와 한비자의 도> 지문을 복습할 것을 권합니다. 난이도는 '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 남용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면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 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었다.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라 할 수 있다.

(나)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 절차 중에 행하여진 강제 처분이 적절한 절차를 따랐는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적부 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

적부 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이는 피의자가 ㉥ 강제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는 수사 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더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이는 영장 발부라는 일회적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즉 강제 처분은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강제 처분의 적용 범위를, (나)는 강제 처분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강제 처분의 이론적 배경을, (나)는 강제 처분이 행사된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강제 처분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나)는 강제 처분의 행사 주체가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강제 처분이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이유를, (나)는 강제 처분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는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나)는 행사된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5. (가)와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강제 처분은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강제 처분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체포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수사 기관의 강제력을 통제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 ④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에 대한 적부 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⑤ 적부 심사에서 강제 처분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다.

6.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의 법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에서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 ② ㉡에서의 법관의 판단은 ㉠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다.
- ③ ㉠은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지만, ㉡은 상황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 ④ ㉠은 청구권자가 수사 기관으로 한정되지만, ㉡은 피의자 본인 이외에도 청구권자가 다양하다.
- ⑤ ㉠은 강제 처분 이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은 강제 처분 이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한다.

7.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제 처분의 적법성은 행사 이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② 판단 시점에 따라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부 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다수의 검증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형사 절차에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8.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문화재 연쇄 훼손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곧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갑의 변호인은 갑을 접견한 이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적부심사에서 갑의 변호인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갑의 석방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갑의 석방을 결정하였고,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되었다.

- ① 체포 이후 갑에게는 이미 일어난 신체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겠군.
- ② 갑에게 발부된 영장은 법원의 판단 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기본권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하겠군.
- ③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갑에게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겠군.
- ④ 갑의 변호인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은 강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⑤ 법원이 갑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9.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통제 없이 사용되어
- ② ㉡ : 기본권의 제한을 보장하는
- ③ ㉢ :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 ④ ㉣ :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해
- ⑤ ㉤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 지문 해설

(가)

[1문단]

1)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2)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3)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4) 따라서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지문의 1문단은, 주로 글의 중심 주제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1~2) 국가가 형사 절차에서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처분을 통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글의 중심 주제가 ‘형사 절차에서의 강제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진 채 아래로 내려가자.

#당연한 말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 3) 수사 기관이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처분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행사하면, 그 권한이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말들은, “아,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넘기자.

#‘개념의 제시/정의’는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리해야 한다.

→ 4)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영장주의’라 정의하고 있다. ‘개념의 정의’가 제시될 때는,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떠올리며 정리해 두어야 한다.

[2문단]

1)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면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3)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당연한 말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 1) 앞서 제시된 ‘영장주의’개념의 정의를 잘 읽어냈다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겠다.

#하위 범주로의 구분이 나타나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2) 영장의 두 가지 성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임을 드러내는 ‘허가 문서’로서의 성질이다. 둘째는 사전 심사를 통해 기본권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표지’로서의 성질이다. 그렇다면, 영장의 두 가지 성질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제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채 아래로 내려가자.

→ 3) 앞선 내용을 잘 읽어냈다면 영장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바로 앞 문장에서 이러한 영장은 반드시

사전 심사를 거쳐 발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영장주의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전 심사가 필요하게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장치’의 성질을 갖는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다.

[3문단]

1)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3) 하지만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4)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원칙과 예외: ‘예외가 될 조건’에 주목하며 읽는다.

→ 1~2)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 한다. 예외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있을 때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건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아래로 내려가자.

#원칙과 예외: ‘예외가 될 조건’에 주목하며 읽는다.

→ 3~4)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가 될 조건임이 제시되고 있다.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원래 영장주의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 사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라는 조건이 깔릴 때, 영장주의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사후에라도 반드시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여전히 둔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겠다.

[4문단]

1)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 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3) 따라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었다. 4)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 ‘예외가 될 조건’에 주목하며 읽는다.

→ 1) 앞서 체포의 경우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라는 조건 하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하였으나, 구속은 그 기간이 체포에 비해 훨씬 길고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강력한 조치이므로 영장주의를 항상 원칙대로 적용함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구속은 체포와 달리 반드시 사전 심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추론해야 한다.

#개념의 제시/정의’는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리해야 한다.

→ 2~3) 법관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 실질 심사’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제시되었으니, 정리해 두자.



→ 4) 앞서 제시된 영장 실질 심사는,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영장 실질 심사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라는 표현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생략될 수 없는 절차라는 점을 읽어 두어야 한다.

#앞에서 읽어낸 내용은, 언제든 다시 끌어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5)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앞서, 영장 실질 심사라는 절차를 두는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구속이 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즉 앞서 언급된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임을 추론할 수 있겠다.

(나)

[1문단]

1)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이는 형사 절차 중에 행하여진 강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3)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적부 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

#개념의 제시/정의’는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리해야 한다.

→ 1) 이미 체포나 구속이 된 이후에,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를 ‘적부 심사’라 정의하고 있다. (가)의 영장주의가 강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라면,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라는 점을 알 수 있으니 둘을 비교하며 정리해 두자.

#당연한 말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 2) 강제 처분이 법을 잘 지켜 진행되었는지, 정말로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적부 심사의 목적이라는 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재진술을 통해 앞서 진행한 독해에 확신을 얻을 수 있다.

→ 3) ‘적부 심사’라는 장치의 핵심 기능은 이미 강제 처분이 행사된 상태에서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적부 심사가 강제 처분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임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있음을 이해하면 충분하다.

[2문단]

1) 적부 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2) 이는 피의자가 강제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4) 심문 과정에는 수사 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5)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1~2)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당사자뿐 아니라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다. 왜일까? 적부 심사는 이미 강제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간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의자를 대신해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피의자를 방어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를 이해하고 아래로 내려가자.

#세부 정보는 그저 정보로 받아들일 뿐이다.

→ 3~4) 적부 심사가 청구된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다. 법원은 48시간 내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 과정에는 수사 기관, 변호인, 청구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그저 정보로 받아들여 두면 그만이다.

→ 5~6) 법원이 확인하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은 앞서 (가)에서 구속 영장 발부 시 검증했던 요인들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따졌던 요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따지는 것이 ‘적부 심사’임을 추론할 수 있겠다.

[3문단]

1)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게 된다. 2) 이는 영장 발부라는 일회적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3) 즉 강제 처분은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앞에서 읽어낸 내용은, 언제든지 다시 끌어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1~2) 앞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따졌던 요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따지는 것이 ‘적부 심사’임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따졌던 요인들이 지금 유효하지 않다면 피의자를 석방하게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즉, 한번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진술을 통해 앞서 진행한 독해에 확신을 얻을 수 있다.

→ 3) 앞서 영장주의가 강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라면,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라는 점을 잘 읽어냈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옳음을 재확인하는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강제 처분의 적용 범위를, (나)는 강제 처분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가)는 강제 처분에 적용되는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를, (나)는 강제 처분 이후의 적부 심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강제 처분의 효과와 한계가 (나)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 ② (가)는 강제 처분의 이론적 배경을, (나)는 강제 처분이 행사된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나)에서 강제 처분이 행사된 구체적인 실제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는 강제 처분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나)는 강제 처분의 행사 주체가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나)에서 강제 처분의 행사 주체가 달라지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가)는 강제 처분이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이유를, (나)는 강제 처분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가)는 강제 처분이 기본권을 제한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강제 처분 자체가 기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없다.
- ⑤ (가)는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나)는 행사된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가)는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나)는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점검하여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절차인 ‘적부 심사’를 설명하고 있다.

5. (가)와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 (가)에서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이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표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영장 발부가 국가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강제 처분은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강제 처분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  
→ (나)에 따르면 피의자는 강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청구는 수사 기관이 아닌 법원에게 이루어진다.
- ③ 체포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수사 기관의 강제력을 통제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 ‘체포’와 ‘구속’ 모두에서, 수사 기관의 강제력을 통제하는 기관은 법원으로 동일하다.
- ④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에 대한 적부 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가)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영장 없이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의 경우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또한, 지문에서 적부 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 뿐이다.
- ⑤ 적부 심사에서 강제 처분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다.  
→ (나)에 따르면 구속 적부 심사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고 하였다. 구속 상태가 종결될 뿐,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6.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의 법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에서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의 판단이 적법했더라도 이후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위험이 사라지면 석방을 결정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이는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에서의 법관의 판단은 ㉠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다.  
→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하는 것은 사후 심사인 구속 적부 심사(㉡)이 아니라 사전 심사인 영장 실질 심사(㉠)이다.
- ③ ㉠은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지만, ㉡은 상황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 구속은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영장 실질 심사(㉠)은 생략될 수 없다. 반면 구속 적부 심사(㉡)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청구가 없다면 생략될 수도 있다.
- ④ ㉠은 청구권자가 수사 기관으로 한정되지만, ㉡은 피의자 본인 이외에도 청구권자가 다양하다.  
→ 구속 적부 심사(㉡)은 피의자 본인을 포함한 다양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절차이지만, 영장 실질 심사(㉠)은 청구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 ⑤ ㉠은 강제 처분 이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은 강제 처분 이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한다.  
→ 영장 실질 심사(㉠)과 구속 적부 심사(㉡) 모두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7.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제 처분의 적법성은 행사 이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영장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선지이므로 선지 자체의 내용은 옳다. 다만, ㉠의 의미로는 적절하지 않겠다.

② 판단 시점에 따라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강제 처분이 이미 행사된 채 사후 심사의 성격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는,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는 법원이 어느 시점에 판단을 내리더라도 ‘행사되었다’로 동일하다.

③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부 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제 처분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 경우 피의자가 법원의 사후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적부 심사를 먼저 청구한다면, 해당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적부 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④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다수의 검증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는 영장 실질 심사와 적부 심사라는 장치를 두는 이유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⑤ 형사 절차에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는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강제 처분을 수사 기관의 판단만으로 실행할 수 있었기에 선지 자체의 내용도 틀렸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가 맥락상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기에 틀린 선지이다.

8.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문화재 연쇄 훼손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지만, 수사 기관은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곧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갑의 변호인은 갑을 접견한 이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적부 심사에서 갑의 변호인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갑의 석방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갑의 석방을 결정하였고,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되었다.

- ① 체포 이후 갑에게는 이미 일어난 신체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졌군.  
→ 갑은 체포가 이루어진 후, 적부 심사를 통해 체포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에게 발부된 영장은 법원의 판단 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기본권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하겠군.  
→ 영장은 갑에게 이루어진 기본권 제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이다.
- ③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갑에게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겠군.  
→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갑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적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④ 갑의 변호인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은 강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겠군.  
→ 갑의 변호인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이유는, 갑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 ⑤ 법원이 갑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진 상태라고 판단한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갑의 석방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원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진 상태라고 판단했음을 전제한다.

9. ㉠ ~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통제 없이 사용되어

→ (가)의 1문단에서,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제시되고 있다. ‘남용’은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된 다’라는 의미이므로, ‘통제 없이 권한이 사용되어’라는 문맥상 의미로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다.

② ㉡ : 기본권의 제한을 보장하는

→ (가)의 2문단에서, 영장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문을 잘 읽어냈다면, 영장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낼 뿐, 기본권의 제한 자체를 보장하거나 권장하는 장치는 아님을 읽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을 보장하는’이라는 문맥상 의미로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 :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 (가)의 4문단에서, 과거에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 영장의 발부를 결정하던 방식은 그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음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수사 기록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이라는 문맥상 의미로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다.

④ ㉣ :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해

→ (나)의 1문단에 의하면, 적부 심사는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에서 그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은 체포나 구속을 통해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를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해’라는 문맥상 의미로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다.

⑤ ㉤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 (나)의 2문단에서, 피의자의 주변 인물들이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적법성에 대한 다툼을 제기한다’는 것은 곧 법원에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그 처분의 정당성을 따진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맥상 의미로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다.







●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 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결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한다.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다.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로,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로 작용한다. 이 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DAT)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

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뉴런 안에서 분해된다. 다만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포함된다.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다.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다.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어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되면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이로 인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면서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운동이 시작된다. 반면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 간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된다.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하여 목표하는 운동의 시작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

1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조체 뉴런 중에는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
- ②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
- ③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 ④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 ⑤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떤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 여부가 달라진다.

11.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성 뉴런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네. 그렇지만 그 양이 조절되는 양상은 ㉠ 때문에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

- ① 도파민 분해 효소가 도파민성 뉴런 내부에 있기
- ② DAT나 D2 계열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이 있기
- ③ D1 계열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기
- ④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 도파민 중 일부는 분해되지 않고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기
- ⑤ 도파민성 뉴런의 DAT 존재 여부에 따라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되는 도파민의 양이 달라지기

1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 ② ㉡은 ㉠과 달리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는다.
- ③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 ④ ㉠과 ㉡은 모두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된다.
- ⑤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각 경로를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게 된다.

1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파킨슨병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어 선조체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수의적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는 것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의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단, 모든 약물은 입을 통해 투여되며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수 있다.)

- (가) 레보도파 :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어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킴. 투여된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됨.
- (나) 카르비도파 :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며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여 말초 조직에서만 작용함.
- (다) 프라미펙솔 :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뉴런에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기능하게 함.

- ① (가)는 도파민과 달리 약물로 투여할 경우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군.
- ④ (나)를 (가)와 함께 투여하면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것이 차단되어 뇌로 전달되는 레보도파의 양이 증가하겠군.
- ⑤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와 (다)를 병용할 수 있겠군.



지문 해설

[1문단]

1)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 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2)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3)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4)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결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5)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한다. 6)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다. 7)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지문의 1문단은, 주로 글의 중심 주제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1~3) 외부에서 음식이나 약물로 섭취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다며, 뇌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되었을 때만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도파민과 신경 전달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래로 내려가자.

#하위 범주로의 구분이 나타나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4~5) 연결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 과정을 다루며, 뉴런을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냅스 전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시냅스 틈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시냅스 후 뉴런’은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뉴런임을 정리해 두자.

#복잡한 과정이 제시되면, 이해를 버리고 글자로만 읽고 넘겨버린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선지를 보고 돌아와서 눈팅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 6~7) 티로신이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다시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과정과, 합성된 도파민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일련의 신호 전달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단계로 구성된 복잡한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한다거나, 모두 기억한 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그냥 가볍게 읽고, 여기에 ‘도파민의 합성 과정’~‘도파민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고 추후 선지를 보고 돌아와서 확인하자. 이렇게 정보량 폭탄이 쏟아질 때, 평가원이 이러한 세부 정보에 대해 선지에서 던진 물음은 fact check 수준에서만 그칠 뿐, 깊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 물음들로 그간 구성되어 왔다.

[2문단]

1)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로,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로 작용한다. 2) 이 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



도 위치할 수 있다. 3)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4)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5)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DAT)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6)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뉴런 안에서 분해된다. 7) 다만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하위 범주로의 구분이 나타나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1~2) 도파민 수용체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인 'D1 계열'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인 'D2 계열'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서술을 통해, “어? 도파민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에 위치하는 거 아니었어? 굳이 D2 계열이 시냅스 전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서술을 해 줬다면, D1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에만 위치하지만,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양쪽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겠구나!”라는 추론을 하며 아래로 내려가자.

#‘개념의 제시/정의’는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리해야 한다.

→ 3~4)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가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는 점을 통해,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CASE 분류의 기준이 제시되면, CASE를 나누어 정보를 정리하자.

→ 5~7)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DAT에 의해 재흡수되어 재사용되거나 분해될 수 있음이 제시된다. 단,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DAT가 없는 경우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는 점 역시 제시되고 있으니, DAT의 존재 여부에 따른 도파민의 재사용이나 분해 과정의 차이점을 정리해 두자.

[3문단]

1)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포함된다. 2)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다. 3)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다. 4)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어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되면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5) 이로 인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면서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운동이 시작된다. 6) 반면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된다. 7) 따라서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된다.

→ 1) 도파민의 역할 중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껏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 던져졌으니, 이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래로 내려가자.

#세부 정보나 설명 없이 새로운 개념이나 화제만 던져질 때는, 아래에서 세부 정보와 설명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내려가자.

→ 2~3) 수의적 운동이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신경 경로'가 무엇인지가 아래에서 제시되어야 하겠고, 그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도 아래에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채 아래로 내려가자.

#복잡한 과정이 제시되면, 이해를 버리고 글자로만 읽고 넘겨버린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선지를 보고 돌아와서 눈팅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 4~5) '선조체 뉴런 활성화' →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 분비' → '내측 창백핵 뉴런 활성화 억제' → '시상으로 가바 분비 억제' →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 활성화' → '대뇌 피질로 글루타메이트 분비' → '운동 시작'이라는 직접 경로에서의 수의적 운동 조절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그 긴 거'급 길이의 정보를 우리가 완벽히 이해한다거나 모두 기억한 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치능아 엄청 나게 높은 사람이라면 혹시 모른다. 그런데 거기 해당한다면 이걸 보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가 '운동을 시작시키는 것'임을 챙겨 두면 충분하다. 즉, 이 문장을 읽고 우리의 기억에는 "직접 경로를 통한 수의적 운동 조절은,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구나!"라는 내용만 남아 있다면 충분한 것이다.

#복잡한 과정이 제시되면, 이해를 버리고 글자로만 읽고 넘겨버린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선지를 보고 돌아와서 눈팅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 6~7) '선조체 뉴런 활성화' →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 →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 분비' → '내측 창백핵 뉴런 활성화' → '직접 경로와 상반된 작용 발생' → '운동 차단'이라는 간접 경로에서의 수의적 운동 조절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직접 경로에 대한 길고 복잡한 과정이 제시된 문장을 대할 때처럼, 우리의 기억에는 "간접 경로를 통한 수의적 운동 조절은, 운동을 억제하는 방향이구나!"라는 내용만 남아 있다면 충분하겠다.

[4문단]

1)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2)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 3) 따라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하여 목표하는 운동의 시작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

#앞에서 읽어낸 내용은, 언제든 다시 끌어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1~3) 앞서 D1 계열은 흥분성 수용체, D2 계열은 억제성 수용체임을 정리해 두었다. 그렇다면,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를 억제하는 것은 선조체 뉴런의 활성화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겠다.



1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조체 뉴런 중에는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  
→ 지문의 4문단에 의하면,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
- ②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  
→ 지문의 1문단에 의하면, 도파민성 뉴런에서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다.
- ③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 지문의 3문단에 의하면, 수의적 운동의 조절 과정에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가바성 뉴런에서 합성되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 등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한다.
- ④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 지문의 2문단에 의하면,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만이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따라서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도파민이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떤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진다.  
→ 지문의 2문단에 의하면, 도파민 수용체 중 D1 계열은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로, D2 계열은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D1 계열과 D2 계열 중 어떤 계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지에 따라 시냅스 후 뉴런에서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11.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성 뉴런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네. 그렇지만 그 양이 조절되는 양상은 ㉠ 때문에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

- ① 도파민 분해 효소가 도파민성 뉴런 내부에 있기  
→ 도파민 분해 효소가 내부에 있다는 것은 도파민성 뉴런의 일반적인 특징일 뿐이므로, 뉴런에 따라 조절 양상이 다른 이유가 될 수 없다.
- ② DAT나 D2 계열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이 있기  
→ 지문의 2문단에서는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있는 경우에’라는 서술을 통해, 이는 모든 도파민성 뉴런이 D2 계열 수용체를 갖는 것은 아님을 전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지문에 의하면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T 유무에 따라 도파민의 재흡수 및 분해가 일어나는 위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도파민 분비와 잔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D2 계열 수용체와 DAT가 없는 뉴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뉴런마다 조절 양상이 달라지는 이유로 볼 수 있다.
- ③ D1 계열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기  
→ 지문에 의하면,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용체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설명한 것일 뿐이므로, 개별 뉴런마다 도파민 조절 양상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④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 도파민 중 일부는 분해되지 않고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기  
→ 도파민성 뉴런에 재흡수된 도파민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재흡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도파민성 뉴런 간에 조절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⑤ 도파민성 뉴런의 DAT 존재 여부에 따라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되는 도파민의 양이 달라지기  
→ DAT(도파민 수송체)는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도파민을 뉴런으로 재흡수하는 과정에 관여할 뿐, DAT 존재 여부가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양 자체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직접 경로(㉠)은 활성화되고 간접 경로(㉡)은 억제된다. 그러나 도파민이 직접 경로(㉠)에 작용하면, 경로 활성화 → 운동 촉진(글루타메이트 분비)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간접 경로(㉡)에 작용할 때도 운동을 차단하던 경로를 억제 → 운동 차단이 방지되어 결과적으로 운동 촉진(글루타메이트 분비)이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따라서 직접 경로(㉠)과 간접 경로(㉡) 모두에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 ② ㉡은 ㉠과 달리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는다.  
 → 지문의 3문단에 의하면, 직접 경로(㉠)에서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되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는다. 반면 간접 경로(㉡)가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되어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된다. 따라서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 ③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 흑질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직접 경로(㉠)의 D1 수용체에 결합하여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고, 이는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을 억제한다. 한편 간접 경로(㉡)에서는 도파민이 D2 수용체에 결합하여 선조체 뉴런 자체의 활성이 억제되므로,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억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결국 ㉠과 ㉡ 모두 도파민의 작용으로 인해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④ ㉠과 ㉡은 모두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된다.  
 → 지문의 3문단에 의하면 ㉠이 활성화되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활성화되어 운동이 시작되지만, ㉡이 활성화되면 이와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된다. 따라서 ㉠과 달리 ㉡이 활성화될 때는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된 상태로 남을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각 경로를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게 된다.  
 → 도파민은 직접 경로(㉠)의 D1 수용체에 결합하면 해당 경로를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지만, 간접 경로(㉡)의 D2 수용체에 결합하면 해당 경로를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한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파킨슨병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어 선조체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수의적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는 것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의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단, 모든 약물은 입을 통해 투여되며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수 있다.)

(가) 레보도파 :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어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킴. 투여된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됨.

(나) 카르비도파 :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며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여 말초 조직에서만 작용함.

(다) 프라미펙솔 :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뉴런에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기능하게 함.

- ① (가)는 도파민과 달리 약물로 투여할 경우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겠군.  
→ 지문에 의하면 약물을 통해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반면 <보기>에 의하면 (가)는 투여 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된다고 하였으므로, 도파민과 달리 약물 투여 시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에 진입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군.  
→ <보기>에 의하면 (나)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며,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애초에 흑질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흑질 내부에서 합성된 도파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 ③ (다)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군.  
→ <보기>에 의하면 (다)는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도파민처럼 기능할 뿐, 도파민의 합성 과정과 관련된 흑질의 뉴런에 작용한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 ④ (나)를 (가)와 함께 투여하면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것이 차단되어 뇌로 전달되는 레보도파의 양이 증가하겠군.  
→ <보기>에 의하면 (가)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되어 버린다. 그런데, 말초 조직에서 합성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뇌에서 쓰일 수 없다. (나)는 말초 조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합성 과정을 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가)와 (나)를 함께 투여할 시 (나)를 투여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가)가 뇌로 무사히 도달할 수 있게 된다.
- ⑤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와 (다)를 병



용할 수 있겠군.

→ <보기>에 의하면 파킨슨병은 흑질에서 선조체로 분비되는 도파민 양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다면, 도파민 합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의 투여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다)를 병용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네프트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적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목적적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며, ‘주격 나’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자아이다. ‘주격 나’가 ‘목적적 나’를 받아들이면 개인은 ‘목적적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하는 경우 개인은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대안적 정체성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하기도 하는데, 정체성의 인정을 위한 이러한 저항을 인정 투쟁이라 한다. 인정 투쟁의 성공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며, 호네프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프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수행성의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수행성이란 수행에 의해 대상이 구성되는 성질이다. 규범이 수행성을 지녔다는 것은 수행이 규범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임을 뜻한다.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그 역시 수행성을 지닌다. 개인은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면서, 규범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버틀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

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개인이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 투쟁으로서의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 이때 인정 투쟁은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규범을 주도하는 권력이나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차이를 내세우며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정 투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정 투쟁의 성공은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는 이러한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인정 투쟁의 주체는 규범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 없이 시험할 때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

14. 규범에 대한 ‘호네프트’와 ‘버틀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네프트는 규범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③ 호네프트와 달리 버틀러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④ 버틀러와 달리 호네프트는 규범이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고정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 ⑤ 호네프트와 버틀러는 모두 인정 투쟁의 결과로 인한 규범의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진리 체제가 작동시키는 규범이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생존 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진리 체제인 규범 역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 ③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화 ○○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을 다룬다. 갑오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백정이 해방되었지만 차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백정 갑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했다. 하지만 아들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자 그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형평사를 결성하였고, 그 결과 백정의 자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하였고 차별은 계속되었다.

- ① 호네트의 견해에 의하면, 갑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한 것은 '목적적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한 것이겠군.
- ② 버틀러의 견해에 의하면, 갑은 아들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보며 차이를 의식한 것이겠군.
- ③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갑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한 것이겠군.
- ⑤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형평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계속된 것은 인정 투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잔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일어났다.
- ② 큰형의 노력에 의해 집안이 다시 일어났다.
- ③ 그는 오랜 지병을 이겨 내고 병상에서 일어났다.
- ④ 오래된 서가의 책장에서 먼지가 보얗게 일어났다.
- ⑤ 유명 배우가 공항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일어났다.



지문 해설

[1문단]

1) 호네프트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그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적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3) ‘목적적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며, ‘주격 나’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자아이다. 4) ‘주격 나’가 ‘목적적 나’를 받아들이면 개인은 ‘목적적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

#지문의 1문단은, 주로 글의 중심 주제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1~2) 호네프트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호네프트는 ‘인정’을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라 정의하고, ‘정체성’을 ‘목적적 나’와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자. 첫째는, 이 글의 중심 화제가 호네프트의 ‘인정’과 ‘정체성’ 개념에 대한 논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목적적 나’와 ‘주격 나’라는 생소한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이 개념들의 정의나 이 개념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제시된 바 없으니, 아래에서 그 설명이 등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념의 제시/정의는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리해야 한다.

→ 3~4) ‘목적적 나’와 ‘주격 나’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호네프트는 ‘목적적 나’를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추상화된 자아라 정의하고, ‘주격 나’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자아라 정의한다. 따라서 고유의 자아인 ‘주격 나’가,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추상적 자아인 ‘목적적 나’를 받아들이면,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개인은 정체성에 대한 존중인 ‘인정’을 받게 된다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2문단]

1)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하는 경우 개인은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2) 대안적 정체성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3) 또한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하기도 하는데, 정체성의 인정을 위한 이러한 저항을 인정 투쟁이라 한다. 4) 인정 투쟁의 성공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며, 호네프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CASE 분류의 기준이 제시되면, CASE를 나누어 정보를 정리하자.

→ 1~2) 앞서 ‘주격 나’가 ‘목적적 나’를 받아들여야 개인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이 제시되었는데, 만약 ‘주격 나’가 ‘목적적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 개인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다면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졌으니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때,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개인이 부정적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주격 나’와 ‘목적적 나’의 관계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가 달라짐을 정리해야 한다.

#개념의 제시/정의는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리해야 한다.

→ 3~4) 개인이 사회 규범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하는 것을 ‘인정 투쟁’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정 투쟁’이 성공하면 규범이 변화하고 대안적 정체성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 호네프는 이러한 ‘인정 투쟁’을 통해 사회 발전이 일어난다고 보았음을 정리해 두자.

[3문단]

1)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프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수행성의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2) 수행성이란 수행에 의해 대상이 구성되는 성질이다. 3) 규범이 수행성을 지녔다는 것은 수행이 규범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임을 뜻한다. 4)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그 역시 수행성을 지닌다. 5) 개인은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면서, 규범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비판이 제시되는 경우, 비판의 이유와 이어져 등장하는 대안에 주목해야 한다.

→ 1) 버틀러라는 사상가가 새롭게 등장하여 호네프의 주장을 비판한다. 호네프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버틀러는 이를 비판하며 ‘수행성’의 개념을 도입해 규범과 정체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그렇다면, “수행성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버틀러가 바라본 규범과 정체성 간의 관계는, 호네프가 바라본 것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물음을 가진 채 아래로 내려가야 하겠다.

→ 2~3) 앞 문장을 읽으며 가진 두 가지 물음 중,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 제시되고 있다. ‘수행성’을 수행에 의해 대상이 구성되는 성질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범’이 수행성을 지닌다는 것은 ‘규범’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행에 의해 구성되고, 수행의 반복에 의해 변화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임을 이해할 수 있겠다.

→ 4~5) 버틀러는 ‘정체성’ 역시 수행적 반복의 실천에 의해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버틀러의 입장에서는 ‘정체성’개념 역시, 앞 문장에서 제시된 ‘규범’처럼 ‘수행성’을 지닐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버틀러는 개인이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4문단]

1) 버틀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2) 그런데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개인이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 투쟁으로서의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 3) 이때 인정 투쟁은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규범을 주도하는 권력이나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차이를 내세우며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 1~2) 버틀러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생존의 근본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행적 반복이 매번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과정은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버틀러의 입장에서 수행



적 반복의 실천은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개인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면 생존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인정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하위 범주로의 구분이 나타나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3) 버틀러가 인정 투쟁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음이 제시된다. 첫째는 규범이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의 인정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차이를 내세우고 저항하는 형태의 인정 투쟁이다.

[5문단]

1) 인정 투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정 투쟁의 성공은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2)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는 이러한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인정 투쟁의 주체는 규범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4)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할 때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

→ 1~3) 버틀러에게 ‘인정 투쟁’은, 성공하더라도 기존 있던 배제를 일부 해체할 뿐, 해체되지 못한 또 다른 배제가 필연적으로 잔존한다는 한계가 제시된다. 버틀러는 왜 인정 투쟁이 이러한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을까? 그는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이러한 진리 체제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하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일성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누군가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인정 투쟁에 성공해 인정을 받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누군가가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 버틀러가 말하는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다.

→ 3~4) 또한, 앞서 제시된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버틀러는 인정 투쟁의 주체가 스스로의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왜 버틀러가 이러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버틀러는 이러한 방식을, 정체성과 규범이 쌍방향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배제를 최소화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14. 규범에 대한 ‘호네프트’와 ‘버틀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네프트는 규범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지문의 1문단에 의하면, 호네프트는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받아들여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이 ‘인정’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 ②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지문의 3문단에 의하면,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호네프트와 달리 버틀러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지문에 의하면, 버틀러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호네프트는 규범이 정체성 형성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 ④ 버틀러와 달리 호네프트는 규범이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고정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 지문에서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프트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즉, 호네프트는 규범이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고정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기에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⑤ 호네프트와 버틀러는 모두 인정 투쟁의 결과로 인한 규범의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 지문의 5문단에 따르면, 버틀러는 인정 투쟁의 성공이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존재를 또다시 상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 투쟁의 결과로 규범이 변화하더라도, 그러한 인정 투쟁의 결과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일성을 부여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 버틀러의 견해이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진리 체제가 작동시키는 규범이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버틀러는 인정 투쟁이 성공하더라도 기존의 배제를 해체할 뿐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를 낳는다고 본다. 버틀러는 진리 체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그 규범에서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하여 배제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버틀러는 인정과 배제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정 투쟁을 하는 주체는 자신이 기존의 진리 체제 대신 새롭게 내세우는 진리 체제 역시 또 다른 타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② 생존 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진리 체제인 규범 역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 버틀러는 생존 투쟁에 해당하는 ‘인정 투쟁’으로 인해 규범이 변화를 겪는다고 보았으므로, 선지의 내용 자체는 옳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 투쟁을 하는 주체가 자신의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버틀러는 인정 투쟁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 수행적 반복이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이 배제되었음을 느끼고 인정 투쟁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일 뿐이다.

⑤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버틀러가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시험하자고 한 것은,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하여 새로운 배제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 아니라,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화 『○○』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을 다룬다. 갑오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백정이 해방되었지만 차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백정 갑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했다. 하지만 아들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에 허가받지 못하자 그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형평사를 결성하였고, 그 결과 백정의 자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하였고 차별은 계속되었다.

- ① 호네프의 견해에 의하면, 갑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한 것은 ‘목적적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한 것이겠군.  
→ 호네프의 견해에서, 갑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내한 것은 당시 사회의 부당한 규범에 의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호네프의 견해에서 이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추상화된 자아인 ‘목적적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한 상황에 해당한다.
- ② 버틀러의 견해에 의하면, 갑은 아들이 학교 입학에 허가받지 못한 것을 보며 차이를 의식한 것이겠군.  
→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은 매번 다른 시공간의 수행적 반복 속에서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통해 차이를 의식하고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인정 투쟁’을 시작한다. 따라서 아들의 입학 거부하는 갑이 기존 규범으로부터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차이를 의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호네프의 견해에 따르면, 갑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군.  
→ 호네프의 견해에 따르면, ‘주격 나’는 규범에 반발하여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규범에 저항하는 것은 ‘인정 투쟁’의 한 양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이 차별적 규범에 반발하여 형평사를 결성하고, 백정에 대한 차별이라는 규범에 저항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호네프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한 것이겠군.  
→ 호네프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기존의 차별적인 사회 규범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면화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규범에 저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형평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계속된 것은 인정 투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잔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백정의 자식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은, 사회의 규범이 변화한 것으로 인정 투쟁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계속된 것은 인정 투쟁이 성공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가 잔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일어났다.

→ 지문의 ㉠는 ‘어떤 현상이나 일 따위가 생겨나다’라는 의미이다. 선지의 ‘일어났다’ 역시 ‘사건이나 일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깝다.

② 큰형의 노력에 의해 집안이 다시 일어났다.

→ 지문의 ㉠는 ‘어떤 현상이나 일 따위가 생겨나다’라는 의미이다. 반면, 선지의 ‘일어났다’는 ‘쇠약해진 가세나 세력 따위가 다시 번성하거나 부흥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그는 오랜 지병을 이겨 내고 병상에서 일어났다.

→ 지문의 ㉠는 ‘어떤 현상이나 일 따위가 생겨나다’라는 의미이다. 반면, 선지의 ‘일어났다’는 ‘앓던 병이 나아 회복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④ 오래된 서가의 책장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 지문의 ㉠는 ‘어떤 현상이나 일 따위가 생겨나다’라는 의미이다. 반면, 선지의 ‘일어났다’는 ‘가루나 먼지 따위가 위로 솟아오르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유명 배우가 공항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일어났다.

→ 지문의 ㉠는 ‘어떤 현상이나 일 따위가 생겨나다’라는 의미이다. 반면, 선지의 ‘일어났다’는 ‘소리나 감정, 현상 따위가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 26년도 3모에서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1. 독서 (신요찬)

- #1. 사회(법)
- #2. 과학(생물)
- #3. 인문

### 2. 문학 (정지환)

- #1. 현대시 수필 복합
- #2. 고전시가
- #3. 현대소설
- #4. 고전소설



## ●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  
㉠ 내 다 가 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나)

방금 판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데굴데굴 굴러 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그녀는 서류 봉치를 나르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밟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찢겨처럼 뻗어 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발걸음에서 튀어 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 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를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 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 올린 풀이라는 것을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을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견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 김기택,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

(다)

**[앞부분의 내용]** 글쓴이(‘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인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오호라! 인생은 백 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느니 보다는 방외에 마음을 두어 노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붓 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흑의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 놓은 말이야 말해 무엇 하랴!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먼저 그 이름부터 지었더군.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어찌 ㉡ 꿈에서 파초 잎으로 덮어 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B]

[A]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안이요, 원림은 밖일세. 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본다네.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네.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 놓은 전원이 천 년 백 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하니 어찌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재를 삼았던가? 이에 대해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걸세.

옛날 증장통은 「낙지론」을 지어 소망했으나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글에나 기탁하였을 뿐이네. 유린은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이 없었다네. 그 친구인 문징중이 그를 위해 「신루도」를 그려서 선물했네.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거니와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

침재 강세황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 「의원도」를 그려 주마고 약속하였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노늠이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이름과 실재를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

- 유경중, 「의원지」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다)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가), (나)와 달리 (다)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음성상징어를, (나)와 (다)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가)는 의문형 어미를, (나)와 (다)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

19.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 주목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 ② [A]에서 ‘웃음’과 ‘발걸음’의 주체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을 토대로 [B]에서 ‘외로운 추수꾼’으로 지시된다.
- ③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연된다.
- ④ [A]의 ‘발걸음’에서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쇄는 [B]에서의 ‘걸음’이 ‘걸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 ⑤ [A]의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은 [B]에서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에 대응되면서, ‘외로운 추수꾼’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대를 간직한 채 망설이는 태도를, ㉡은 꿈에서의 기대를 내려놓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기대 실현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 형성된 기대를 현실로 확장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미련을 버리고 기대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떨치고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현실에서 품은 기대가 좌절될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허상으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사실의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여기'의 현실로 소환한다. (가), (나), (다)는 각각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동시에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당신'의 부재는 '서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나)에서 '커다란 웃음'은 '고층 빌딩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② (가)에서 '여느 바다'에 대한 경험은 '그곳 바다'와의 공통적 속성을 유추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이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의식하게 하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군.
- ③ (나)에서 '서류 뭉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판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와 동일시되면서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에 구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군.
- ④ (가)의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다)의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공간의 물리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과 (다)의 '종이 위에 펼쳐 놓은 말'에 대한 언급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에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22. (다)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붓 끝에서 완성하는' 일을 대비하여, 실제 원림을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 ② '힐난하는 이'는 '이름'과 '실질'의 관계를 언급하며, 원림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③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재하는 형상에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나'는 '증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나'는 '이름과 실재를 그려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라고 언급함으로써,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 현대시+수필 해설

## [18~22] 문제 조망하기

21번 <보기> '읽기'
19번: (나) [B]까지 독해 완료 후 풀이 (구간 유형)
22번: 실시간 풀이 (구절 평가) → (다) 독해 완료
(가) 독해 → 20번: 독해 후 풀이 (기호 밑줄 비교)
21번: 독해 후 풀이 (구절의 평가 묻는 <보기>)
18번: 독해 후 풀이 (표현법)

## 21.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여기'의 현실로 소환한다. (가), (나), (다)는 각각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를 드러낸다.

- ▶ 공통점: 공간 배경 = 비가시적  
차이점: (가) 서해, (나) 고층 빌딩 사무실, (다) 원림
- ▶ 범주: 공간(현실VS상상)

## 교훈(〈보기〉 분석)

<보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공통점/차이점의 경우, 왜 각 작품이 묶여서 한 세트로 제시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해석의 틀을 통해 붙여읽고 연결해봅시다!

## (나)

## 1연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데굴데굴 굴러 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 ▶ 대상: 사과, 사과를 든 누군가(웃음)
- ▶ 화자는 사과를 가득 들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니 완급 조절을 통해 빠르게 갑시다!

## 2연

그녀는 서류 멍치를 나르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밟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 ▶ 대상: 사과를 든 누군가 = 그녀, 서류 멍치
- ▶ 상황: 화자는 고층 빌딩 사무실(공간 배경) 안에서 그녀를 관찰하고 있음
- ▶ 화자의 시선에 들어온 그 누군가가 그녀였군요. 두 대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 19. [B]까지 독해 후!

- ▶ 각 구간은 첫 독해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만 한 후, 선지가 묻는 것을 보고 돌아갑시다.

## 3, 4연 [A]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 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발걸음에서 튀어 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 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를

- ▶ 대상: 사과 속에 담긴 자연(하늘, 물, 바람), 그녀

의 발걸음과 웃음

대상 간 관계: 사과 → 하늘, 물, 바람 / 발걸음  
→ 공기 → 햇빛 → 햇빛 과즙, 햇빛 향기

- ▶ 화자는 서류 문치를 나르는 그녀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자연의 생명력(햇빛 과즙, 향기 등)을 연상하며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를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보고 '사과'와 '발걸음'의 관계를 최소한으로만 처리하고 갑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5연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 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 올린 풀이라는 것을

<보기> 붙여읽기

- ▶ 배경: 고층 빌딩(현실) → 땅, 흙, 풀 (상상)

6, 7연 [B]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을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걸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 ▶ 대상: 외로운 추수꾼(=그녀)의 '웃음'과 '걸음'
- ▶ 태도: 그녀 내면의 충만한 생명력(저절로 흘러나온 웃음과 걸음)에 대한 예찬

**교훈(문제를 통한 이해)**

평가원이 왜 하필 [A]와 [B]를 묶어서 19번 구간형 문제를 냈을까요? 겉보기엔 그저 서류를 나르는 일상이지만, 그 본질은 내면에서 저절로 익어 흘러나오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학생이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웃음 → 사과 → 땅, 흙 → 추수꾼'을 파악했다면, 19번 문제는 이미 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19. 선지를 통한 [A]와 [B]의 판단

■ 정답해설

- ③ [A]의 '웃음'은 '사과'와 대응되며, [B]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것으로 제시됩니다. 작품에서는 스스로 충만하여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움을 드러냈으나, 선지에서는 이를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저절로' 이루어지는 충만한 상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한정적 조건(필요조건)으로 왜곡했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대상 간 관계

비문학이 아니기에, 문학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처음부터 따지며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선지에서 물어본 것을 보고 돌아가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필요/충분조건

실전에서 선지를 판별할 때 '~어야', '~해야만' 같은 제한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오답해설

- ①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서술어 뒤로 목적어를 빼는 도치법을 통해 문장 성분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주목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② [A]에서 웃으며 걷는 주체인 '그녀'는 인공물인 '고층 빌딩'이 '땅', '흙', '풀'이라는 자연물로 인식되는 과정을 거친 후, [B]에서 웃으며 걷는 '외로운 추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④ [A]의 '발걸음'은 '공기', '햇빛', '과즙'으로 꼬리를 물며 연쇄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연쇄 작용은 '공기', '햇빛'과 어우러진 [B]에서의 '걸음'이 외부의 힘 없이도 '걸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 ⑤ [A]에서는 사과 속에 이미 추수꾼의 웃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 웃음은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며 저절로 익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곧 '외로운 추수꾼'이 스스로 생명력이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22. 선지에서 판단 근거를 알고 잡시다.

- ①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붓 끝에서 완성하는' 일을 대비하여, 실제 원림을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 ▶ '나'가 원림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대조를 통해 파악합시다.

### (다)

[앞부분의 내용] 글쓴이('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인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오호라! 인생은 백 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현실에서 물리적 원림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느니 보다는 방외에 마음을 두어 노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붓 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실제 경영보다 글, 그림으로 완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화자의 가치관)

- ▶ 물리적인 원림을 직접 경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차라리 글이나 그림(붓 끝)으로 완성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적절합니다.
- ② '힐난하는 이'는 '이름'과 '실질'의 관계를 언급하며, 원림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힐난하는 이)의 비판 요지를 확인합시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외적인 일의 성패나 소유보다는 내면에서 어떻게 즐기느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깨달음)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의뢰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마음속

'뜻'만으로 원림이 영원히 실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 논리)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흑의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 놓은 말이야 말해 무엇 하랴!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은 뜻이며, 이 '뜻'을 얻고 나면 물리적 원림이나 심지어 종이 위의 글조차 부차적인 껍데기가 된다는 깨달음)

- ▶ 일단 2번 선지에서 묻는 '힐난하는 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글쓴이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인물의 등장)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먼저 그 이름부터 지었더군.(사물에는 실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글쓴이를 비판)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실체도 없으면서 글로만 그럴싸하게 과장한 행위를 지적함)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어찌 ㉠ 꿈에서 파초 잎으로 덮어 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 ▶ 원림을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았으면서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②번은 적절합니다.
- ③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재하는 형상에 얽매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나'가 자신의 깨달음을 전제로 어떤 반박을 하는지 확인하고 이 선지를 판단합시다!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안이요, 원림은 밖일세. (내면의 본질과 외면의 물리적 실체를 대비함)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본다네.(대상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네.(물리적 실재에 얽매일 때 오히려 본질을 잃고 구속되어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주장)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 놓은 전원이 천 년 백 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하니 어찌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재를 삼았는가? (원림이라는 이름은 껍데기일 뿐 진정한 실재는 '마음'임을 확인함) 이에 대해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걸세.

▶ 실재하는 사물에 구속되면 오히려 원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다(방해받는다)고 반박합니다. ③번은 적절합니다.

④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제시되나 봅니다. 확인하러갑시다!

옛날 중장통은 「낙지론」을 지어 소망했으나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글이나 기탁하였을 뿐이네.(사례<sup>1</sup>: 중장통의 사례를 통해 '글이 실제 물리적 즐거움을 완벽히 대신하지는 못했음'을 화자 스스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린은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이 없었다네.(사례<sup>2</sup>: 현실적 제약에 부딪힌 유린의 사례) 그 친구인 문징중이 그를 위해 「신루도」를 그려서 선물했네.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거니와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글과 그림이 물리적 실체를 똑같이 대체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뜻'을 담고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본질적인 즐거움은 충분하다는 결론!)

▶ '나'가 두 인물의 사례를 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보면 중장통은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라고 한계를 그어두었습니다. 즉, 글이나 그림이 물리적 실체를 완벽히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똑같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④

첨재 강세황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 「의원도」를 그려 주마고 약속하였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노늠이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이름과 실재를 그려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마음속 뜻이 이미 충만하므로 원림의 물리적 존재 여부나 실재를 따지고 논쟁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부차적이라는 말)

- 유경중, 「의원지」 -

## (가)

### 1연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  
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 ▶ 대상: 서해(현실), 당신
- ▶ 화자는 서해에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봅니다.

### 2연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뒹척이겠지요

- ▶ 서해는 분명 다른 바다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가 특별해서 '당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 3연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 ▶ 화자는 당신을 찾으러 서해를 제외한 모든 바다를 가봤습니다. 그렇기에 서해에 당신이 없음을 확인한다면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에 가지 않습니다.

### 4연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 대상: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상상)
- ▶ 정서: 그리움
- ▶ 화자가 가보지 않은 상상속의 서해는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말과 반대됩니다. 당신이 그림나 봅니다.

## 교훈(문학의 비문학적화)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  
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이유)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목적)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수단)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이유)

위와 같이 화자의 특정 행동에는 이유(~기에)가 존재하며, 달성하려는 목적(~를 위해)과 이를 위한 수단이 짝을 이룹니다. 시어에 결합된 '~기에', '~를 위해' 같은 요소에 반응하여 '원인/결과', '목적/수단'의 구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 교훈(최대한의 감상)

시험을 봤으니, 학습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이 정도까  
지 생각해봅시다!!

이 시의 화자를 단순히 '그리워하는 사람'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화자는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그리움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서(그리움)와 태도(의도적 회피) 모두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4연에서 서해는 현실의 공간에서 마음속의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가 '마음속에서 파도친다'는 것은, 화자가 현실에서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당신에 대한 지향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이겠죠.

20. 기호 밑줄 부분만 봐선 안 된다!

■ 정답해설

- ㉔ (가)에서 화자는 ‘당신’이 서해에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지키기 위해 끝내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㉕은 사실의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다)의 ㉖은 꿈에서 본 사슴을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좋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짚어낸 ㉔번이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맥락과 상황 파악

㉔은 앞서 살펴본 대로 ‘~기에’를 통해 화자의 목적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㉖은 ‘힐난하는 이’가 ‘나’를 비판하기 위해 끌어온 비유입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밑줄 부분만 봐선 안 됩니다. (다)의 ㉖은 꿈속의 일을 현실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맥락이므로, ㉗의 주체는 기대를 현실까지 끌고 와서 유지하려는 사람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 오답해설

- ① ㉔은 기대를 ‘내려놓고자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까지 끌고 와서 고집하려는 태도입니다.
- ② ㉔은 기대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유보하려는 태도입니다. ㉖ 역시 기대를 현실로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 ③ ㉔은 미련과 기대가 커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㉖ 역시 기대를 떨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현실에서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 ④ ㉔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스스로 ‘허상으로 치부(가치 없다고 버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재라고 여기며 현실에서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21. <보기>의 공간에 집중.

■ 정답해설

- ㉔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은 현실 공간인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외로운 추수꾼’이 존재하는 상상의 공간을 창출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제약을 넘어서는 것인데 선지에서는 이를 비가시적인 세계를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수궁하려는)’ 태도라고 했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보기> 연결하기

현실 공간이 화자의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그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확장되는지, 그 대비와 초월의 구조를 지문 독해 시 그대로 붙여 읽고 연결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바꿔치기

선지를 읽을 때는 앞부분의 그럴듯함에 속지 말고 문장의 끝, 서술어의 방향이 <보기>의 논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오답해설

- ① (가)에서는 서해(현실 공간)에 당신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화자로 하여금 마음속(상상)에 바다를 남겨두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에서는 고층 빌딩 사무실(현실 공간)에서 그녀의 생명력 넘치는 웃음을 본 것이 추수꾼이라는 상상의 공간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보기>와 연결됩니다.
- ② (가)의 화자는 ‘여느 바다’나 서해가 똑같은 것이라 유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개입되면서, 여느 바다와 서해는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보기>의 ‘공간들 간의 대비’ 논리와 연결됩니다.
- ③ 현실의 그녀가 나르는 ‘서류 멍치’가 화자의 상상 속에서는 ‘사과 상자’로 동일시되어 겹쳐 보입니다. 사무실(현실)의 동선 위에 사과밭(상상)의 동선이 1겹치며 굴러가고 있습니다. <보기>의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과 연결됩니다.
- ④ (가)의 바다와 (다)의 원림은 현실의 땅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속에만 온전히 존재합니다. 두 화자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 현실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 18. 표현법의 비교

적인 정서와 어긋납니다.

### ■ 정답해설

- ① (나)는 ‘방금 딴 사과’, ‘외로운 추수꾼’ 등의 구체적 자연물과 소재를 통해 수확기인 가을의 계절적 분위기를 뚜렷하게 자아냅니다. 반면 (가)의 ‘바다, 개펄’이나 (다)의 ‘원림’ 묘사에서는 특정 계절을 짐작할 만한 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 지문독해 FRAME

#### 표현법

바로 보이는 비유, 의문형 어조, 대구, 도치 정도는 바로 파악하되, 설의, 영탄과 같은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선지에서 물어보면 돌아갑시다.

### ● 선지판단 FRAME

#### 계절감

- 봄 (생동/시작): 새싹, 진달래, 봄바람, 녹는 얼음
- 여름 (성장/무더위): 장마, 소나기, 무성한 잎(녹음)
- 가을 (수확/쇠락): 추수, 사과, 벼, 귀뚜라미, 낙엽
- 겨울 (시련/적막): 눈(함박눈), 앙상한 가지, 찬 바람, 얼음

### ■ 오답해설

- ② (다)에서 ‘나’와 ‘힐난하는 이’가 대화(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비판과 반박(논쟁)의 과정일 뿐,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③ (가)에는 ‘들락거리고’, ‘뒤척이겠지요’ 등의 동사는 있으나, 소리나 모양을 구체적으로 흉내 내는 음성상징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성상징어는 (나)의 ‘데굴데굴’, ‘출렁거리며’ 등에 존재합니다.)
- ④ (가)의 2연에서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라는 의문형 어미가 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해 역시 다른 바다와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이라는 평범성에 대한 인식일 뿐, 대상(바다) 자체에 대한 예찬적 태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⑤ (가)에서 ‘그곳 바다’, ‘멀리서’, (나)에서 ‘저 푸르먼서도’ 등의 지시 표현이나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연이나 대상에 대해 압도당하는 두려움과 공경의 감정인 ‘경외심’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작품의 전반



●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미는가.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벼슬아치 앞에 다녀왔나 땀이 등을 적시겠구나.

㉠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할 수 없다. 동냥도 하시는고?

중인도 속절없다. 등짐도 지시는고?  
밥벌이를 하셨으니 저녁밥을 많이 먹소.

㉡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어먹기 매번 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망정 이 노릇은 못 하겠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삼기나 하리라.

짚 한 단 적서 놓고 신날부터 꼬아 보니

㉢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짚 새끼를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채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네.  
할 수 없이 내어놓고 노 꼬기나 하리라.  
긴 삼대 벗겨 내어 자리 노를 배워 꼬니  
오동에 낙엽 지고 가을바람 소슬한데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물과 하늘 한 빛이구나.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노 꼬기에 부쳤도다.

(중략)

내 아니 잊었는데 임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눈서리 친다 한들 ㉣ 비와 이슬 아니 올까.  
울면서 떠난 입을 웃으며 만나고 싶네.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니 무엇으로 끄겠는가.

끄기도 어려운 불 오장의 불이로다.

㉤ 하늘 물 얻으면 끌 수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다.  
차라리 빨리 죽어 이 설움을 모르고 싶네.

포구 가에 퍼져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며  
적막한 중문 굳게 닫고 온갖 일 다 버리고  
끓어 죽으려 함도 몇 번인지 아실른가.

㉥ 일각이 삼 년처럼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사립문에 개 짓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이\* 파는 장수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라.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는고.

설움 모여 병이 나니 온갖 증세 한꺼번에 나온다.

㉦ 배가 고파 허기중에 몸이 추워 냉증이요

잡 못 들어 현기증 나니 조갈증은 늘 앓는 병이로다.

술로 든 병이면 술을 먹어 고치며

임으로 든 병이면 임을 만나 고치니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려고 한들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으려 하겠는가.

- 안도환, 「만언사」 -

\* 황야: 일용 잡화.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영원성과 대조되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어지러운 세태를 제시하고 이에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주변 경치를 관찰하고 느낀 감상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자연에서의 낯선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탈속적 이상향을 향한 동경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을 반복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②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대응시켜 상대의 언행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상반된 행위를 연달아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 열거의 방식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2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특정 행위가 동기로 작용하여 일어난 상반된 결과이다.
- ② ㉠와 ㉡는 정서의 형성을 매개하면서 그 정서가 표출되는 방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 ③ ㉠와 ㉡는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대비를 이루는 대상이다.
- ④ ㉠에서 ㉡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다.
- ⑤ ㉠에서 ㉡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뀔 것임을 암시하는 배경이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만연사」의 화자는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탐색과 반응의 구조는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강화한다.

- ① ‘빌어먹기’에 이어서 ‘신 삼기’와 ‘노 꼬기’를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은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하려는 반복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지런히’ 나는 ‘오리’ 및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은 ‘근심 많은 이내 마음’을 ‘노 꼬기’에 부치게 된 화자의 상태에 조용하는 자연의 풍광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임’과 ‘웃으며’ 재회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다는 진술에서 그 간절함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공문’과 ‘장수’의 대응과, ‘석방 문서 가진 관선’과 ‘고기 잡는 어선’의 대응은 희망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면서 소망의 실현이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군.
- ⑤ ‘임으로 든 병’을 고치는 방법에 착안하여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려’는 것은, 귀양살이로 인한 ‘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군.



 **고전시가 해설**

**[18~22] 문제 조망하기**

26번 <보기> '읽기'
24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b>독해 완료</b>
25번: 독해 후 풀이 (기호 밑줄 비교)
26번: 독해 후 풀이 (구절의 평가 묻는 <보기>)
23번: 독해 후 풀이 (표현법)

**<보 기>**

「만연사」의 화자는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탐색과 반응의 구조는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강화한다.

- ▶ 상황: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
- ▶ 반응: 적응해 나가려 노력함
- ▶ 독해의 틀: 탐색과 반응의 구조

**교훈<<보기>>의 처리**

단순하게 <보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기>는 해석의 프레임(틀)이 되어 주기에, 우리는 저 '탐색'과 '반응'을 틀로 삼아 작품과 붙여읽으며, 어떤 부분이 저 '탐색'과 '반응'에 속하는지 연결하며 가야 합니다.

**24.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① ㉠: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 명령형 표현을 확인합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미는가.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벼슬아치 앞에 다녀왔나 땀이 등을 적시겠구나.

▶ **현대어 풀이**

동냥하는 것도 꿈같고 등짐 지는 것도 꿈같구나. 누가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미는가. 아무리 몸을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할까.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온갖 고생) 끝에 겨우 오니, 무서운 벼슬아치 앞에 다녀온 것처럼 식은땀이 등을 다 적시겠구나.

- ▶ 화자는 유배지에서 먹고살기 위해 동냥질을 하고 등짐을 지고 있습니다. 평생 안 해본 고된 육체노동이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몹시 힘겨워하고 있네요.

㉠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할 수 없다. 동냥도 하시는고? 중인도 속절없다. 등짐도 지시는고? 밥벌이를 하셨으니 저녁밥을 많이 먹소.

▶ **현대어 풀이**

저 주인의 행동을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양반이라고 별수 없네. 동냥도 하시는가? 중인(양반 아래 계급)도 어쩔 수 없네. 등짐도 지시는가? 밥벌이를 하셨으니 저녁밥이나 많이 먹으시오.”

**24.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① ㉠: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 '거동 보소(보시오)'라는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뒤이어 쏟아지는 주인의 조롱 섞인 대사에 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①번은 적절합니다.

㉠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어먹기 매번 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할 일이다.  
차라리 굶을망정 이 노릇은 못 하겠네.

▶ **현대어 풀이**

네 웃음소리도 듣기 싫고 그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이렇게 남에게 빌어먹는 짓을 매  
번 하겠는가. 내 평생 처음 겪는 일이다 다시는 못  
할 일이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 짓(동냥질)  
은 못 하겠네.

## 24.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②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대응시켜 상대의 언행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 ▶ ‘네 웃음도 듣기 싫고’ (A도 ~하고) / ‘많은 밥도 먹기  
싫다’ (B도 ~하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대구법)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인의 비웃음과 밥에 대한  
화자의 거부 반응을 강조합니다. ②번도 적절합니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삼기나 하리라.  
짚 한 단 적셔 놓고 신날부터 꼬아 보니  
㉠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짚 새끼를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채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네.

▶ **현대어 풀이**

(동냥 대신)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짚신 삼  
기나 해야겠다. 짚 한 단을 물에 적셔 놓고 신날부  
터 꼬아 보니, 부드러운 종이 노(줄) 꼬는 것도 모  
르는데 거친 짚으로 새끼줄을 어찌 꼬겠는가. 다만  
한 발 길어도 채 꼬지 못해 손바닥이 다 부르터버  
리네.

- ▶ **탐색:**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 ▶ **반응:**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짚 새끼를 어찌 꼬리’

## 24.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③ ㉠: 상반된 행위를 연달아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 ▶ 손바닥이 부르트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부분을 보세요. ‘종이 노 꼬

기’와 ‘짚 새끼 꼬기’가 서로 상반된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줄을 꼬는’ 유사한 노동 행위이  
며, 쉬운 것(종이)도 못 하는데 더 어려운 것(짚)을  
어떻게 하겠냐는 의미일 뿐입니다. 평가원의 바뀐  
치기입니다. 따라서 ③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③

할 수 없이 내어놓고 노 꼬기나 하리라.  
긴 삼대 벗겨 내어 자리 노를 배워 꼬니  
오동에 낙엽 지고 가을바람 소슬한데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물과 하늘 한 빛이구나.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노 꼬기에 부쳤도다.

▶ **현대어 풀이**

할 수 없이 짚신 삼기를 포기하고 그냥 노 꼬기나  
해야겠다. 긴 삼대(삼의 줄기)를 벗겨 내어 돛자리  
역을 줄을 꼬고 있으니, 오동나무에 낙엽이 지고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부는데, 오리 떼는 가지런히  
날아가고 물과 하늘이 같은 빛깔이구나. 유배자의  
근심 많은 내 마음을 이 노 꼬는 일에 달래어 본  
다.

- ▶ **탐색:** ‘노 꼬기나 하리라’ (짚신 삼기에 실패한 후  
새로운 일을 탐색함)
- ▶ **반응:**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노 꼬기에 부쳤도다’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근심을 달래는 수단으로 반응  
이 변화함)
- ▶ 앞서 세워둔 <보기>의 프레임을 적용해 볼까요?  
화자는 ‘동냥’과 ‘신 삼기’에 실패한 후 새로운 일  
인 ‘노 꼬기’를 탐색합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생계  
수단이라기보다는, 가을의 쓸쓸한 풍경 속에서 자  
신의 근심과 시름을 잊어보려는 것일 뿐입니다.  
<보기>대로 열악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든 적응하  
려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내 아니 잊었는데 임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눈서리 친다 한들 ㉠ 비와 이슬 아니 올까.  
 울면서 떠난 입을 웃으며 만나고 싶네.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니 무엇으로 끄겠는가.  
 끄기도 어려운 불 오장의 불이로다.  
 ㉡ 하늘 물 얻으면 끌 수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다.  
 차라리 빨리 죽어 이 설움을 모르고 싶네.  
 포구 가에 퍼져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며  
 적막한 중문 굳게 닫고 온갖 일 다 버리고  
 굶어 죽으려 함도 몇 번인지 아실른가.

▶ 현대어 풀이

내가 임금님을 잊지 않았는데 임금님께서 설마 나를 잊으셨겠는가. 바람과 구름이 흩어져도 다시 모일 때가 있으니, 눈서리(가혹한 시련) 친다 한들 비와 이슬(임금의 은혜, 사면)이 내리지 않을까. 울면서 떠난 임금님을 다시 웃으며 만나고 싶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억울하고 답답하여 가슴속에 울화병(불)이 난다.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니 무엇으로 이 불을 끄겠는가. 끄기도 어려운 내장 속의 불이로다. 하늘 물(임금의 은혜)을 얻으면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줄 뻔히 알면서도 얻지 못하니 혀가 바짝 말라 할 말이 없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이 서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고 싶네. 포구 가에 털썩 주저앉아 하루 종일 통곡하기도 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려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며, 적막한 중문을 굳게 닫고 모든 일을 다 버려둔 채 굶어 죽으려 한 것도 도대체 몇 번인지 임금님은 아실까.

▶ **탐색:** ‘비와 이슬 아니 올까’, ‘하늘 물 얻으면 끌 수도 있건마는’ (자신을 구원해 줄 임금의 은혜와 석방의 가능성을 탐색함)

▶ **반응:**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함도’, ‘굶어 죽으려 함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절망감에 자살 충동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임)

▶ 유배 가사의 핵심 모티프인 ‘연군지정(임금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임금이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지만, 소식이 없자 가슴속에 극심한 화(불)가 치입니다. 이 화병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금의 사면(하늘 물)뿐인데 이를 얻지 못하니, 결국 바다에 뛰어든거나 굶어 죽으려

하는 반응(절망감)을 보입니다.

▶ 뒤에 풀 25번 문제를 위한 기호 ㉠, ㉡가 나왔으니 문제화가 될 겁니다. 복귀할 준비를 합시다!

㉠ 일각이 삼 년처럼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사립문에 개 짓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아\* 파는 장수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다.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는고.

▶ 현대어 풀이

짧은 시간(일각)이 삼 년처럼 더디게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까. 사립문에 개가 짓으니 나를 풀어줄 관청의 공문이 온 것인가? 반가워 뛰어나가 물어보니 일용 잡화(황아)를 파는 장수로다. 바다에 배가 들어오니 석방 문서를 실은 관청의 배(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로다. 하루 열두 번의 시간 동안 이런 헛된 기다림을 몇 번이나 겪었던가.

▶ **탐색:** ‘사립문에 개 짓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외부의 작은 소리와 움직임 속에서도 끊임없이 석방의 기미를 탐색함)

▶ **반응:**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아 파는 장수로다’,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는고’ (기대에 부풀어 뛰어나갔으나 매번 착각임을 깨닫고 허탈해하는 반응)

24.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④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고작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인 ‘일각’을 ‘삼 년’이라고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과장법을 통해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④번은 적절합니다.

설움 모여 병이 나니 온갖 증세 한꺼번에 나온다.

㉠ 배가 고파 허기증에 몸이 추워 냉증이요  
잠 못 들어 현기증 나니 조갈증은 늘 앓는 병이로  
다.

술로 든 병이면 술을 먹어 고치며  
임으로 든 병이면 임을 만나 고치니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려고 한들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으려 하겠는가.

#### ▶ 현대어 풀이

설움이 뭉쳐서 병이 나니 온갖 증세가 한꺼번에 나타나다. 배가 고파 허기증이 나고 몸이 추워 냉증이 걸리며, 잠을 못 자 현기증이 나고 목이 마른 조갈증은 늘 앓는 병이로다. 술을 많이 마셔 생긴 병이면 술을 먹어서 고치고, 임을 향한 상사병이면 임을 만나서 고치겠지만, 공명(벼슬길, 정치)에 나아갔다가 생긴 병을 다시 벼슬길에 나가서 고치려고 한들, 한 번 활을 맞고 놀란 새(과거에 화를 당한 화자 자신)가 다시 과녁(위험한 벼슬판)에 앉으려 하겠는가.

▶ **탐색:**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려고 한들’ (병의 근원인 정치적 문제를 다시 정치적 재기로 해결해 보려는 가정을 탐색함)

▶ **반응:**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으려 하겠는가’ (다시는 정치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극도의 트라우마와 환멸이라는 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마무리됨)

## 24.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⑤ ㉠: 열거의 방식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 허기증, 냉증, 현기증, 조갈증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증세들을 나열(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가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신체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⑤번도 적절합니다.

### ■ 교훈(실시간 풀이와 적절성)

실시간 유형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다면 출제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답을 고른 그 순간, 나머지 선지는 작품에 대한 해설지가 되니까요.

## 25. 기호 밑줄의 비교는 읽고 바로!

### ■ 정답해설

③ ㉠(비와 이슬)는 ‘눈서리’ 치는 가혹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투영한 시어입니다. ‘아니 올까’라는 진술을 통해 그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하고 있죠. 반면, ㉡(하늘 물)는 화병으로 인한 ‘오장의 불’을 끄고 싶은 기대를 투영하지만, ‘알고도 못 얻으니’라는 진술에서 그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 지문독해 FRAME

#### 상징

작품에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 ● 선지판단 FRAME

#### 비교

두 대상을 비교할 때,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 ■ 오답해설

① ㉠과 ㉡는 모두 가혹한 현실(눈서리, 오장의 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수단, 즉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므로 서로 상반된 속성의 시어가 아닙니다.

② ㉠은 사면에 대한 희망(아니 올까), ㉡는 사면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못 얻으니)입니다.

④ ㉠에서 ㉡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의 순환 과정이 아닙니다. 둘 다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상징적 매개체일 뿐입니다.

⑤ ㉠에서 ㉡로 이어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지도 않으며, ㉡에서는 ‘알고도 못 얻으니’라며 상황이 바뀔 수 없다는 절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황이 바뀔 것임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6. <보기>의 범주화!

■ 정답해설

- ⑤ 윗글의 화자는 ‘공명(벼슬)으로 든 병’을 다시 공명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으려 하겠는가’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환멸감을 드러낸 것이지, 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보기>의 범주화

이 문제의 <보기>는 화자의 태도를 ‘열악한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문을 읽으며 화자의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평가원은 지문에 있는 시어를 선지에 그대로 끌고 와서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럴싸한 선지를 만들어냅니다. 주의합시다!

■ 오답해설

- ① ‘빌어먹기(동냥)’에 실패한 후 ‘신 삼기’와 ‘노 꼬기’라는 다른 노동을 연이어 시도하는 것은, 열악한 유배 생활에서 어떻게든 생계를 잇고 적응해 보려는 화자의 반복적인 노력(<보기>의 탐색)을 잘 보여줍니다.
- ② 짙신 삼기에 실패하고 노 꼬기를 하며 바라보는 가을의 쓸쓸한 풍경(오리, 물과 하늘)은, 근심 많은 화자의 내면 상태에 조응하여 시름을 달래게 하는 자연적 배경으로 기능합니다.
- ③ 임금의 사면(비와 이슬)을 기다리며 하루 열두 번도 더 개 짖는 소리나 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보기>의 반응)이 확인됩니다.
- ④ 나를 놓아줄 ‘공문’인 줄 알았으나 잡화 파는 ‘장수’였고, ‘관선’인 줄 알았으나 ‘어선’이었던 상황은 헛된 희망과 냉혹한 현실의 괴리를 뚜렷하게 보여 주며, 소망 실현의 어려움을 부각합니다.

23. 표현상 특징은 마지막에!

■ 정답해설

- 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삼기나 하리라.’, ‘간장이 다 타니 무엇으로 꼬겠는가. 꼬기도 어려운 불오장의 불이로다.’ 등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자문자답) 형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의 막막함과 마음속 울화병 등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어조와 태도

고전시가에서 화자의 정서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특정 어조나 문장 형식(문답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통해 강조됩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화자가 혼잣말로 묻고 답하거나(자문자답),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면 선지화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지판단 FRAME

조건/결과

표현법 선지는 대부분 ‘형식적 특징(A)을 활용하여 → 내용적 효과(B)를 자아낸다’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 뒤부터 봐도 좋지만 적절한 것을 묻는다면 순서대로 판단합시다.

■ 오답해설

- ① 화자는 ‘종일토록 통곡하고’, ‘가슴속에 불이 난다’, ‘허가 말라’ 등 자신의 비참한 감정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절제된 어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관조’란 대상과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화자는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며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관조적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③ 3단락에서 ‘오동에 낙엽 지고~’라며 잠시 주변 경치를 묘사한 부분은 있으나,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구조적인 전개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④ 화자가 있는 곳은 고통스럽고 끔찍한 유배지이지, 속세를 벗어난 이상적 공간이 아닙니다. 자연에서의 낯선 경험(등짐, 노 꼬기) 역시 생존을 위한 고역일 뿐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이름연기’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 왔을 때에야 시작되었다. 그와 다른 열한 명의 소년은 ‘들소의 계곡’ 입구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다른 혈족들과 싸움 중이면 전열의 맨 앞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맹수 사냥의 창잡이로 나서야 했는데, 그해는 들소 사냥의 창잡이로 결정된 것이었다.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원**인 동시에 힘과 용기를 시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맹수였다. ㉠ 그 날카로운 뿔은 호랑이의 뱃가죽을 찢어 놓고 체중 실린 발굽은 곰의 허리뼈를 분질러 놓았다.

㉡ 소년들은 흥분과 초조 속에 떨리서 소를 몰아오는 아버지들의 은은한 합성을 듣고 있었다. 이제 잠시 후면 나타날 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보고 있는 큰 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용사의 자격과 평생**을 따라다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닌 이름은 ‘달무리’라든가 ‘붉은 노을’, ‘새벽 안개’ 따위, 태어날 때의 자연 현상과 관계되는 유아의 이름이었다.

그가 맡게 된 것은 계곡 가운데의 조그만 바위 곁이었다. ㉢ 그 역시 불안과 설렘으로 방금이라도 소가 뛰어나올 것 같은 전방의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를 건드리는 소년이 있었다. 눈이 작고 좀체 깜박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뱀눈’이라고 불리는 소년이었는데 힘은 대단하지 않아도 창과 활을 잘 다루고, 무엇보다도 영리하여 곧잘 아버지를 감탄시켰다.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길 지킬 테니.”

‘뱀눈’이 말했다. 그는 웬지 ‘뱀눈’이 섬뜩하고 싫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펴보니깐 여기가 들소의 길목이야. 그런데 너의 영성한 창질이나 활 솜씨로 지켜 낼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붉은 노을’ 쪽으로 가 봐. 그 애는 힘이 세고 창을 잘 쓰니까 오히려 그쪽이 안전할 거야.”

그는 무언가 ‘뱀눈’에게 속고 있는 기분이 들었으

나, 마땅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아 ‘붉은 노을’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

들소는 그로부터 오래잖아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요란한 합성과 나무토막 두들기는 소리에 몰려 뛰쳐나오는 들소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산부리 쪽에 있던 ‘큰 울음소리’였다.

“소가 온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 들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도 곧 숲 가의 관목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들소를 보았다. 처음 그 소는 똑바로 ‘뱀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새 바위 위에 올라가 똑바로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뱀눈’ 바로 곁에서 소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뱀눈’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견 소는 ‘뱀눈’을 피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뱀눈’이 올라서 있는 한 길 남짓한 바위를 피해 간 것이었다. 거기다가 소가 방향을 바꿀 때 소의 가장 넓은 옆면이 그대로 ‘뱀눈’에게 노출되었다. ‘뱀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소에게 창을 날렸다. 창은 어김없이 소의 질긴 뱃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혔다. 결국 ‘뱀눈’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맨 먼저 찌른 자’란 명예를 확보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서 드러나 있어 큰 아버지들에게는 ‘뱀눈’의 용기와 힘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무대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옆구리에 창을 받은 들소는 바로 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황급히 창을 겨누었다.** 그러나 달려오는 들소의 정면은 ‘뱀눈’이 맞힌 넓은 옆면의 삼 분의 일도 안되었다. 남은 것은 정면 대결뿐이었다. 그는 혼신의 용기로 창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그는 곧 **덮쳐 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 소리에,** 고통과 분노로 불타는 두 눈과 치명적인 일격으로 고양된 **생명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살기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다.

[중략 부분의 내용] ‘소를 겁내는 자’가 된 그는 들소

사냥에 재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동굴로 들어가 들소 그리기에 몰두한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소금기를 핥은 후에도 유유히 주변을 배회하며 신선한 풀을 뜯었다. 그런 그들을 발굽에서 뿔 끝까지 터럭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살피고 있는 그의 가슴은 들소와 대면했던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때는 기껏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네 존재 자체이다. 이제 나는 너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잡아 두고자** 한다.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영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화체 바로 그림 자체를 위해서이다…….

그가 들소에게 몰두해 있는 사이에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그의 몸을 오르내리던 신열이 조금씩 고통으로 변해 갔다. 그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 고통은 내일 날이 밝아야 없어질 것이었다.

갑자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에 그는 심한 재채기가 났다. 그러자 놀란 소들이 그가 있는 벼랑 쪽을 노려보았다. ㉠ 하지만 공격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된 듯 몇 번 위협적인 콧김을 내뿜더니 어슬렁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는 식의 걸음걸이었다.

㉡ 동굴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준비해 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동굴 벽에 돌출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손만 뻗으면 천장의 들소 그림에 닿는 곳이었다. 그는 근처의 바위 틈새에 불붙은 관솔가지를 꽂고 그 불빛에 의지해 방금 보고 온 들소의 모습을 천장 벽에 옮기기 시작했다. 채색을 하기 전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었다. 어렵פות한 윤곽으로만 떠올라 있던 소는 수지에 갠 검명으로 점차 선명한 형태를 이루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전방을 응시하며 앞다리에 힘을 모은 수소였다.

소묘가 완성되자 그는 잠시 그 소를 들여다보았다. 문득 자기에게 덮쳐 오던 엄청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에 불만스러웠다. 아마도 정지된 자세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는 영

덩이 쪽을 더 살리고 뒷다리를 앞으로 굽게 했다. 질주해 오다가 우뚝 멈추어 선 것 같은, 약간의 생동감이 살아났다.

그때 관솔가지가 다 타서 불이 꺼져 버렸다. 바닥으로 내려와 새로운 관솔가지를 찾아 든 그는 거기에 불을 붙이려다가 곧 단념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오한과 신열이 거대한 피로와 함께 갑작스레 그를 짓눌러 왔다.

- 이문열, 「들소」 -

## 27. 이름얻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어날 당시의 명명과 달리 용기와 사냥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받는 의식이다.
- ② 이름에 내재된 자연 현상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부족의 세계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의식이다.
- ③ 신체의 강점과 전투력을 보여 줌으로써 태어날 때 임의로 부여받은 이름을 공고히 유지하는 의식이다.
- ④ 관습에 따른 명명에서 벗어나 집단과 차별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의식이다.
- ⑤ 이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것과 달리 공동체에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호명될 이름을 선택하는 의식이다.

##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을 부각하여 그것이 지닌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사냥을 앞둔 소년들의 긴장감을 청각적 경험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③ ㉢: 복합적인 심정으로 목표물과의 대면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④ ㉣: 인물의 심리를 대상에 투영하여 대상의 움직임에 의도를 부여하고 있다.
- ⑤ ㉤: 행동의 연속적 제시를 통해 관찰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익숙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9.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의 국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③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예측했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용 부호를 생략한 발화를 제시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들소’는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총체이다. 들소를 식량원이자 서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실패한 주인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들소는 물리적 살생의 대상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 ① ‘훌륭한 식량원’과 ‘진정한 용사의 자격’을 얻고자 소년들이 나서는 것은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수렵 대상인 들소를 포획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군.
- ② ‘돌진해 오’는 들소에게 ‘황급히 창을 겨누었’지만 ‘뿔쳐 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 소리’에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주인공의 포획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오한과 신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은 들소를 포착하여 공동체의 서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을 보여 주는군.
- ④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는 들소의 ‘생명력’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 이를 그림에 온전히 담으려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군.
- ⑤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들소를 ‘잡아 두고자’ 하는 것에서 들소가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현대소설 해설

### [27~30] 문제 조망하기

30번 <보기> '읽기'
28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 ㉡, ㉢)
29번: 실시간 풀이 (구간+서술방식)
28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 ㉥)
<b>독해 완료</b>
27번: 독해 후 풀이 (박스)
30번: 독해 후 풀이 (<<보기> 구절 평가)

#### 〈보 기〉

이 작품에서 '들소'는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총체이다. 들소를 식량원이자 서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실패한 주인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획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들소는 물리적 살생의 대상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 ▶ 상황: 들소 사냥(공동체의 요구)에 실패한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포획하려 함
- ▶ 재규정 전 (공동체의 요구 방식): 포획의 대상
- ▶ 재규정 후 (자신만의 방식):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

### [장면1]

그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이름얻기'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 왔을 때에야 시작되었다. 그와 다른 열한 명의 소년은 '들소의 계곡' 입구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다른 혈족들과 싸움 중이면 전열의 맨 앞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맹수 사냥의 창잡이로 나서야 했는데, 그해는 들소 사냥의 창잡이로 결정된 것이었다.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원인 동시에 힘과 용기를 시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맹수였다. ㉠ 그 날카로운 뿔은 호랑이의 뱃가죽을 찢어 놓고 체중 실린 발굽은 곰의 허리뼈를 분질러 놓았다.

- ▶ 소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인 '이름얻기' 의식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들소'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보기>와 붙여 읽어봅시다! 들소는 온 혈족을 배불리 먹일 식량원이자 소년들의 힘과 용기를 시험하는 맹수입니다. 즉,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른 물리적 포획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 상황: 들소 사냥

###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① ㉠: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을 부각하여 그것이 지닌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 ▶ '날카로운 뿔'과 '체중 실린 발굽'이라는 대상(들소)의 신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맹수인 호랑이와 곰마저 박살 내버리는 들소의 파괴력과 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번은 적절합니다.

㉠ 소년들은 흥분과 초조 속에 멀리서 소를 몰아오는 아버지들의 은은한 합성을 듣고 있었다. 이제 잠시 후면 나타날 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보고 있는 큰 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용사의 자격과 평생을 따라다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닌 이름은 ‘달무리’라든가 ‘붉은 노을’, ‘새벽 안개’ 따위, 태어날 때의 자연 현상과 관계되는 유아의 이름이었다.

그가 맡게 된 것은 계곡 가운데의 조그만 바위 곁이었다. ㉡ 그 역시 불안과 설렘으로 방금이라도 소가 튀어나올 것 같은 전방의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를 건드리는 소년이 있었다. 눈이 작고 좀체 깜박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뱀눈’이라고 불리는 소년이었는데 힘은 대단하지 않아도 창과 활을 잘 다루고, 무엇보다도 영리하여 곧잘 아버지를 감탄시켰다.

- ▶ 소년들이 느끼는 ‘흥분과 초조’는 곧 다가올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의 긴장감입니다. 이들에게 들소 사냥은 단순한 사냥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유아적 이름을 버리고, 부족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어른의 이름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례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들소를 기필코 포획해 내야만 하는 억압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기>에 의하면, 공동체의 요구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 인물: 소년들(뒤에서 구분해야 함!)
- ▶ 심리: 흥분과 초조

- ▶ 주인공(그)이 자신에게 배정된 명당인 ‘조그만 바위 곁’에서 들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뱀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주인공을 건드리며 등장하죠. 뱀눈은 힘보다는 영리함과 무기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인물로 소개됩니다.
- ▶ 인물: 그(주인공), 뱀눈
- ▶ 심리: 불안과 설렘

##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② ㉠: 사냥을 앞둔 소년들의 긴장감을 청각적 경험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 소년들의 심리인 ‘흥분과 초조(긴장감)’를 직접적으로 서술함과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들의 은은한 합성(청각적 경험)’을 듣고 있는 모습을 함께 제시합니다. ②번은 적절합니다.

##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③ ㉡: 복합적인 심정으로 목표물과의 대면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 방금이라도 소(목표물)가 튀어나올 것 같은 전방의 숲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내면에는 맹수에 대한 두려움인 ‘불안’과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난다는 ‘설렘’이라는 두 가지 감정, 즉 ‘복합적인 심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③번은 적절합니다.

## 구간 [A]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길 지킬 테니.”  
 ‘뱀눈’이 말했다. 그는 웬지 ‘뱀눈’이 섬뜩하고 싫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펴보니까 여기가 들소의 길목이야. 그런데 너의 엉성한 창질이나 활 솜씨로 지켜 낼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붉은 노을’ 쪽으로 가 봐. 그 애는 힘이 세고 창을 잘 쓰니까 오히려 그쪽이 안전할 거야.”  
 그는 무언가 ‘뱀눈’에게 속고 있는 기분이 들었으나, 마땅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아 ‘붉은 노을’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

- ▶ 뱀눈은 주인공의 엉성한 솜씨를 핑계로 들소의 길목을 빼앗으려 하고, 주인공은 찝찝함을 느끼면서도 소극적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인물 간의 성격이 대비됩니다.
- ▶ 인물과 성격
- 주인공(그): 엉성한 무기 솜씨를 지님. 논리에 밀려 순응하는 소극적 성격
- 뱀눈: 영리함
- ▶ 심리: 주인공(뱀눈에 대한 섬뜩함과 찝찝함)

### [장면2]

들소는 그로부터 오래잖아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요란한 함성과 나무토막 두들기는 소리에 몰려 뛰쳐나오는 들소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산부리 쪽에 있던 ‘큰 울음소리’였다.  
 “소가 온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 들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계속됐다.

- ▶ 드디어 어른들이 몰아넣은 들소가 소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산부리 쪽에 있던 ‘큰 울음소리’라는 소년이 들소를 맨 처음 발견하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외침은 사냥이 끝날 때 까지 계속됩니다.

그도 곧 숲 가의 관목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들소를 보았다. 처음 그 소는 똑바로 ‘뱀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새 바위 위에 올라가 똑바로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뱀눈’ 바로 곁에서 소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뱀눈’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견 소는 ‘뱀눈’을 피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뱀눈’이 올라서 있는 한 길 남짓한 바위를 피해 간 것이었다. 거기다가 소가 방향을 바꿀 때 소의 가장 넓은 옆면이 그대로 ‘뱀눈’에게 노출되었다. ‘뱀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소에게 창을 날렸다. 창은 어김없이 소의 질긴 뱃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혔다. 결국 ‘뱀눈’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뱀’ 먼저 찌른 자란 명예를 확보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서 드러나 있어 큰 아버지들에게는 ‘뱀눈’의 용기와 힘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무대와도 같았다.

- ▶ 들소가 나타나고 뱀눈이 속임수를 통해 안전하게 공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뱀눈이 차지한 바위는 돌진하던 들소가 피해 가는 위치였고, 이때 방향을 트는 들소의 넓은 옆면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자신이 뱀눈의 교묘한 말에 속아 사냥의 명당을 빼앗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 29. 구간 [A] 실시간 풀이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단일 사건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빈번한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②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의 국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 이 글은 3인칭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특정 인물인 주인공 ‘그’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도 곧 ~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 깨달았다’ 등의 서술을 통해, 들소가 돌진하는 상황과 뱀눈의 속임수를 ‘그’의 시각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②번이 적절합니다.
- ③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

를 제시하고 있다.

-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냥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서술할 뿐,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④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예측했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 ▶ 뱀눈이 안전한 바위에서 소의 옆면을 찔러 명예를 얻은 것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이지만, 이는 초점화 된 인물인 주인공 ‘그’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 ⑤ 인용 부호를 생략한 발화를 제시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 인용 부호를 생략한 발화(대화)가 삽입된 부분은 이 단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옆구리에 창을 받은 들소는 바로 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황급히 창을 겨누었다. 그러나 달려오는 들소의 정면은 ‘뱀눈’이 맞힌 넓은 옆면의 삼분의 일도 안되었다. 남은 것은 정면 대결뿐이었다. 그는 혼신의 용기로 창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그는 곧 덮쳐 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 소리에, 고통과 분노로 불타는 두 눈과 치명적인 일격으로 고양된 생명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살기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다.

- ▶ 뱀눈에게 유리한 자리를 빼앗긴 주인공이 창을 맞고 분노한 들소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뱀눈이 공격한 넓은 옆면과 달리, 주인공은 표적이 좁은 정면에서 들소를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입니다. 혼신의 용기를 내어보지만, 고통과 분노로 고양된 들소의 살기와 생명력 앞에 결국 압도당하며 무너집니다. 이는 <보기>의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가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장면3]

[중략 부분의 내용] ‘소를 겁내는 자’가 된 그는 들소 사냥에 재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동굴로 들어가 들소 그리기에 몰두한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소금기를 핥은 후에도 유유히 주변을 배회하며 신선한 풀을 뜯었다. 그런 그들을 발굽에서 뿔 끝까지 터럭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살피고 있는 그의 가슴은 들소와 대면했던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때는 기껏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네 존재 자체이다. 이제 나는 너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잡아 두고자 한다.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영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화체 바로 그림 자체를 위해서이다…….

그가 들소에게 몰두해 있는 사이에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그의 몸을 오르내리던 신열이 조금씩 고통으로 변해 갔다. 그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 고통은 내일 날이 밝아야 없어질 것이었다.

갑자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에 그는 심한 재채기가 났다. 그러자 놀란 소들이 그가 있는 벼랑 쪽을 노려보았다. ⊕ 하지만 공격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된 듯 몇 번 위협적인 콧김을 내뿜더니 어슬렁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는 식의 걸음걸이었다.

- ▶ 사냥에 연이어 실패하여 공동체에서 ‘소를 겁내는 자’로 전락한 주인공이 들소를 ‘그림(예술)’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며 관찰에 몰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보기>를 붙여읽어봅시다!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공동체의 요구 방식)가 아니라, ‘나만의 선과 색으로’ 들소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잡아두겠다(자신만의 방식)는 독백에서 들소가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열이라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관찰을 멈추지 않는 예술적 집념이 드러납니다.
- ▶ 인물과 성격  
주인공(그): 사냥꾼의 정체성을 버리고, 대상을 예술로 형상화하려는 강한 집념을 지님

- ▶ 상황: 사냥을 포기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신열 속에서도 들소를 면밀히 관찰함
- ▶ 배경: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간, 들소가 내려다보이는 장소
- ▶ 심리: 주인공(들소에 매료됨)

##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④ ㉔: 인물의 심리를 대상에 투영하여 대상의 움직임에 의도를 부여하고 있다.
- ▶ 인물의 심리는 대상의 예술적 형상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반면 ㉔에서 서술된 대상(들소)은 주인공을 공격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만약 인물의 심리를 대상에 투영했다면, 대상의 움직임에서도 인물이 가진 그 '열망'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죠. 따라서 ㉔은 주인공 '그'가 관찰한 '소'의 움직임을 서술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④

### [장면4]

㉔ 동굴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준비해 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동굴 벽에 돌출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⑤ ㉔: 행동의 연속적 제시를 통해 관찰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익숙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 '동굴로 돌아'와 '준비해 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와 '바위 위로 올라'가는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물이 대상을 관찰한 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 과정에 익숙해져 있음을 드러내는 설명입니다.

손만 뻗으면 천장의 들소 그림에 닿는 곳이었다. 그는 근처의 바위 틈새에 불붙은 관솔가지를 꽂고 그 불빛에 의지해 방금 보고 온 들소의 모습을 천장 벽에 옮기기 시작했다. 채색을 하기 전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었다. 어렵פות한 윤곽으로만 떠올라 있던 소는 수지에 갠 검댕으로 점차 선명한 형태를

이루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전방을 응시하며 앞다리에 힘을 모은 수소였다.

소묘가 완성되자 그는 잠시 그 소를 들여다보았다. 문득 자기에게 덮쳐 오던 엄청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에 불만스러웠다. 아마도 정지된 자세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는 엉덩이 쪽을 더 살리고 뒷다리를 앞으로 굽게 했다. 질주해 오다가 우뚝 멈추어 선 것 같은, 약간의 생동감이 살아났다.

그때 관솔가지가 다 타서 불이 꺼져 버렸다. 바닥으로 내려와 새로운 관솔가지를 찾아 든 그는 거기에 불을 붙이려다가 곧 단념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오한과 신열이 거대한 피로와 함께 갑작스레 그를 짓눌러 왔다.

- ▶ 동굴로 돌아온 주인공이 방금 관찰한 들소를 벽화로 그리는 장면입니다. ㉔에서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바위에 올라가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것에서,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인물이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보기>의 '들소는 물리적 살생의 대상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과 이 장면을 연결했다면, 최소한의 감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훈(최대한의 감상)

완성된 소묘에서 엄청난 생명력이 사라진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자세를 수정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는 모습은 들소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오한과 신열을 잊을 정도로 그림에 몰두하는 것은 순수한 예술적 욕망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 소재 박스는 맥락을 파악한 후!

■ 정답해설

- ① 지문에서 소년들은 태어날 때 자연 현상과 관계된 유아의 이름(‘달무리’, ‘새벽 안개’ 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소 사냥이라는 ‘이름얻기’ 의식은 힘과 용기를 시험하는 과정이며, 이 사냥의 결과에 따라 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새로운 이름(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명명과 달리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받는 의식이라는 설명은 가장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소재에 대한 평가

소재에 대한 평가는 작품의 맥락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평가원은 지문에 있는 시어를 선지에 그대로 끌고 와서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럴싸한 선지를 만들어냅니다. 주의합니다!

■ 오답해설

- ② 이 사냥은 유아적 이름을 버리고 진정한 어른의 이름을 얻기 위한 사냥입니다. 자연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여 부족한 세계관을 수용하려는 의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들소 사냥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려는 것이지, 태어날 때 임의로 부여받은 유아의 이름을 공고히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들소를 사냥하는 것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서열 결정의 기준에 따르는 통과의례일 뿐, 집단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행위를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사냥의 결과에 따라 큰 아버지들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호명될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0. <보기>의 범주화!

■ 정답해설

- ③ 주인공이 ‘오한과 신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공은 이미 공동체의 방식(사냥)에서 실패한 후, 그림 자체를 위한 예술적 행위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보기>의 범주화

재규정 전(공동체의 요구)과 후(예술적 형상화)를 나눠서 연결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바꿔치기

선지에서는 어떤 요소를 바꿔치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 관계가 존재하는 서술어나, 목적어에 집중합니다.

■ 오답해설

- ① 소년들은 ‘훌륭한 식량원’과 ‘진정한 용사의 자격’을 얻고자 공동체의 요구 방식(<보기>의 재규정 전)에 따라 수렵 대상인 들소를 포획하려 합니다.
- ② ‘돌진해 오는 들소’에게 공포를 느끼는 장면은 주인공의 포획 시도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④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는 들소의 ‘생명력’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 이를 그림에 온전히 담음으로써 들소를 포착하려 하는 모습은 자신만의 방식(<보기>의 재규정 후)으로 대상을 포착하려는 시도에 해당합니다.
- ⑤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들소를 잡아 두고자’ 하는 독백은 들소가 물리적 살생의 대상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 태후는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 태후의 소생이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가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증백의 고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 천상 신선 아니면 수증 비룡처럼 느껴졌다. 보모를 시켜 뉘 집 상공인지를 알아오라고 했다.

유모가 응명하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운 이증백이더이다.”

군주가 기뻐했다. 태후께 증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태후가 상을 알현하고 여쭙니 상이 또한 태후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증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증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자 상이 사랑과 태후를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일하니, 오월 순희였다.

사랑이 부인을 향하여 ㉡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옳으리오?”

부인이 침음 오열하여 말하기를,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현요가 증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이라도 폐하지 못합니다. 영운의 위세와 풍채 장부로 자나 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만일 현요와 성례한 이후에는 만사에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요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삼가지 못해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현요의 연연약질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례를 맡고 증백이 군주를 가까이하고 좌처를 임의로 알아 하거든 소저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여** 어가가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 가며 선처하느니만 같지 못하리이다.”

사랑이 옳게 여기지만, 현요의 부친 오 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를 생각하고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이에 수매정에 가

서 현요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저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속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소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말을 마치고 천연 자약하니, 대개 그 속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군주와 혼인한 후에 이증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군주는 그 연유를 알아내고 주 태후와 천자에게 고변한다.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증백은 감옥에 갇힌다.

한편, 각도 제후들이 천자에게 주문하기를,

“제나라 왕이 반의를 두어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련하오니 사신을 보내시어 칙지를 내려 문죄하시고 그 기미를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상이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 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답하셨다.

승상 주연이 태후께 가만히 여쭙기를,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증백의 죄를 사해 문죄하라 하고 오 소저를 만리 노국에 실어 보내어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니,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노국 세자도 절색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계교가 기특치 아니하리오.”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계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 도모하라!”

주연이 말하기를,

“하교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리이다.”

주연이 이튿날 조참에 출발하여 아뢰기를,

“제국 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대신을 보내어야 반드시 천조를 욱 먹이지 않고 후환을 없게 하리니,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 하시나이까?”

상이 이르시기를,

“짐의 생각이 또한 그러하다. 경등이 천거하여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연이 다시 부복하여 아뢰기를,

“감옥 죄인 이증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본디 이증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즉일에 사면하시고, 상서를 복야에 승품하사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태후의 뜻을 승순하여 죄를 내리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품계를 더 높이 올렸으니, 상이 이증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인이 사은 퇴조하니, 심 부인이 ㉔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 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또 이제 너를 만리타국에 보내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회포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자친을 오래 떠나는 정은 간측하오나 소자의 대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로소이다.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함은 가중에서 일어난 바요, 군주가 만든 일이옵니다.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심도 주연과 태후의 계교이니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 틀림없이 오 씨를 참살할 뜻이오니, 어찌 분완치 않으오리까. 군주가 제가 출행하기 이전에는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군주는 종래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 보모를 보내어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 보모가 상서 가중에 와서 기색을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으므로, 보모가 ㉕ 대희하여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대내에 들어가서는 여쭙기를,

“상서의 집 사람이 다 칭안 우매하여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숙부께 뵈오려 가 계시더이다.”

군주가 당초에 궁에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엄위한 기상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기실은 상서가 원행해야 하므로 아니 나옴이 도리가 아니요, 또 상사 일념에 마침내 속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자 하여 상서 부중에 나왔다. 가중의 상하가 군주를 보고 ㉖ 괴로워하고 무이히 여기며,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었다.

- 작자 미상, 「수매청심록」 -

### 3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백은 군주와의 혼인을 거절했으나 상은 강제로 혼인 날짜를 정했다.
- ② 시랑은 현요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 ③ 상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야 한다는 승상 주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④ 승상 주연은 증백의 사면을 건의했고 상은 이를 수용한 후 증백에게 기존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 ⑤ 군주는 증백의 질책을 염려하였으나 증백이 떠나기 전에 상서 부중에 나가는 것이 도리에 부합하는 행위라 판단했다.

### 32.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증백’을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이며, ‘보모’에게 원하는 정보를 구해 오라는 요청으로 이어지는군.
- ② ㉒: ‘상’의 명령을 받은 ‘시랑’의 반응이며,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지는군.
- ③ ㉓: 새로운 정보를 접한 ‘심 부인’의 반응이며, 거듭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발언으로 이어지는군.
- ④ ㉔: ‘상서 가중’을 관찰한 ‘보모’의 반응이며,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⑤ ㉕: ‘군주’를 본 ‘가중의 상하’의 반응이며, 본심을 감춘 언사로 이어지는군.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제시된 제안은 [B]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분석되고 있다.
- ② [A]에서 예상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B]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 ③ [A]에서 언급된 기묘한 계책은 [B]에서 실현을 위한 방안이 추가되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A]에서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된 대외 상황의 변화는 [B]에서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⑤ [A]에서 인물의 지위 차이로 촉발된 갈등 상황은 [B]에서 위계질서를 수용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매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응은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 ① 군주가 ‘태후께 증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상이 ‘증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한 것은, 공적 권력이 개인의 애정 관계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겠군.
- ②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도 ‘폐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부인이 언급한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승상 주연이 증백을 ‘소임에 적합’한 자로 평가하는 것은, 군주와 태후의 사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과 공적 명분이 부합하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이겠군.
- ⑤ 증백이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임명받는 것은, 증백과 현요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고전소설 해설**

**[31~34] 문제 조망하기**

34번 <보기> '읽기'
32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b>독해 완료</b>
33번: 독해 후 풀이 (구간[A], [B])
34번: 독해 후 풀이 (<<보기> 구절 평가)
31번: 독해 후 풀이 (사실관계)

**<보 기>**

「수매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응은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 ▶ 상황: 공적 권력 vs 사적 관계(혼약)
- ▶ 공적 명령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그리는 애정 소설입니다. <보기>의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읽어봅시다!

**[장면1]**

주 태후는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 태후의 소생이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가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 ▶ 첫 문장부터 낯선 호칭어들이 쏟아집니다. 당황하지 말고 관계를 빠르게 처리합시다.
- ▶ **인물과 성격**
  - 상 = 황제, 이 작품 세계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 주 태후 = 상의 계모, 황실 내 실세입니다.
  - 노왕 = 주 태후의 아들
  - 군주 = 노왕의 딸, 태후의 손녀뻘로, 태후의 총애를 받습니다.
  - 중백 = 아직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훈(작품 독해)**

인물들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뒷 부분을 읽어 나가며 주요인물과 주변 인물을 나누고 필요할 때 이 관계를 떠올리거나 돌아가서 납득하며 가야 합니다.

**32.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① ㉠: '중백'을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이며, '보모'에게 원하는 정보를 구해 오라는 요청으로 이어지는군.
- ▶ ㉠의 주체부터 확인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 주체가 '보모'에게 이 요청을 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천상 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처럼 느껴졌다. 보모를 시켜 뉘 집 상공인지를 알아 오라고 했다.

- ▶ ㉠의 주체부터 확인합시다. 바로 앞 문장의 주어는 '군주'입니다. 따라서 ㉠은 중백을 우연히 목격한 군주의 내면 반응입니다. '천상 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중백의 외모에 대한 군주의 감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곧바로 보모에게 '뉘 집 상공인지를 알아 오라'는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번은 적절합니다.

유모가 응명하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윤 이증백이더이다.”

- ▶ 앞에서 ‘보모’를 시켰는데 여기서는 ‘유모’가 보고합니다. 같은 인물로 보면 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이처럼 동일 인물을 다른 호칭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증백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 ▶ **인물과 성격**  
· 증백(이증백) =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남성 인물, ‘좌영윤’이라는 벼슬을 가진 인물입니다.

### [장면2]

군주가 기뻐했다. 태후께 증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태후가 상을 알현하고 여쭙니 상이 또한 태후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증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증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자 상이 시랑과 태후를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일하니, 오월 순희였다.

- ▶ 이제 혼인이 성사되는 경로를 따라가봅시다.  
군주 → 태후 → 상(황제) → 증백
- ▶ 그리고 <보기>와 붙여읽어 봅시다. 이게 바로 <보기>가 말하는 ‘공적 권력이 사적 관계에 개입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의 ‘사적 관계’에 집중하면, 증백에게는 이미 사적인 혼약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이 물음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세요.
- ▶ 여기서 ‘시랑’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택일 과정에 함께 불려온 것으로 보아 증백과 가까운 집안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기억해두고, 다음 장면에서 역할이 드러날 것임을 예상하며 넘어갑시다.

## 32.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② ㉠: ‘상’의 명령을 받은 ‘시랑’의 반응이며,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지는군.
- ▶ ㉠의 주체가 시랑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상의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이어지는 발화가 부인의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장면3]

시랑이 부인을 향하여 ㉠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옳으리오?”

- ▶ ㉠의 주체는 ‘시랑’입니다. 앞 장면에서 상이 우격다짐으로 혼인 날짜까지 정해버린 직후의 반응이니 상의 명령을 받은 상황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옳으리오?’는 ‘시랑’이 ‘부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②번은 적절합니다.

부인이 침음 오열하여 말하기를,  
“침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옳바르지 않고, 현요가 증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이라도 폐하지 못하  
나이다.

- ▶ 부인의 발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현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보는 인물이니 일단 기억(혹은 표시)해두고, 부인의 발언 속에서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며 읽어 나가면 됩니다.
- ▶ 부인이 제시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 성례하면 → 상의 뜻을 기망하는 꼴이 되어 옳바르지 않다  
· 현요가 증백에게로 가면 →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으로도 끊을 수 없다
- ▶ 두 선택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부인 발언의 핵심입니다. 이 착잡함이 앞의 ‘침음 오열’로 드러난 것이죠. 계속 읽어가며 부인이 결국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따라가봅시다.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장부로 자나 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  
습니까! 만일 현요와 성례한 이후에는 만사에 혐의

가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요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삼가지 못해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현요의 연약한 질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 ▶ 부인의 논리를 따라가봅시다.  
중백과 현요가 성례 → 중백이 군주를 멀리하고 현요에게 드나들 것 → 참화가 닥침 → 연약한 현요가 자진(스스로 목숨을 끊음)할 수 있음  
결국 성례가 오히려 현요를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례를 맡고 중백이 군주를 가까이하고 좌처를 임의로 알아 하거든 소저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여 어가가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 가며 선처하느니만 같지 못하리이다.”

- ▶ 부인의 결론입니다. 성례를 하지 말고, 현요가 과부처럼 조용히 지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보기>와 붙여읽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보기>가 말하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현요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현실적 대응입니다. 이처럼 <보기>와 작품을 연결했다면, 최소한의 이해를 한겁니다.

시랑이 옳게 여기지만, 현요의 부친 오 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를 생각하고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 ▶ 시랑은 부인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 상서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현요의 부친이고, 꿈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과 관계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부인의 전략적 판단과 오 상서의 몽중사 사이에서 시랑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 이 갈등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 ▶ 상황: 부인은 현요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을 제시했고 시랑은 이를 옳다고 여기면서도 결단하지 못함

[장면4]

이에 수매정에 가서 현요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저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소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말을 마치고 천연 자약하니, 대개 그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 ▶ 시랑이 직접 현요를 찾아가 부인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현요가 시랑을 숙부, 부인을 숙모라고 부른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즉 시랑 부부와 현요는 친척 관계입니다.
- ▶ 인물과 성격
  - 현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인물, 자신의 감정보다 숙부의 걱정을 먼저 헤아리는 성품을 지님

교훈(최대한의 감상)

현요는 부인의 판단에 동의하며 태연자약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서술자가 바로 그 이면을 짚어줍니다. ‘대개 그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현요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 태연하게 답했지만, 그것은 걱정하는 숙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요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발언 사이의 간극을 서술자가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면5]

[중략 부분의 줄거리] 군주와 혼인한 후에 이중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군주는 그 연유를 알아내고 주태후와 천자에게 고변한다.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 중백은 감옥에 갇힌다.

- ▶ 중략 줄거리에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부인의 전략적 판단과 달리 중백과 현요는 결국 성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우려했던 대로 중백이 군주를 멀리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고변으로 이어져 중백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부인의 예측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장면5]**

한편, 각도 제후들이 천자에게 주문하기를,  
“제나라 왕이 반의를 두어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련하오니 사신을 보내시어 칙지를 내려 문죄하시고 그 기미를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상이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 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답하셨다.

- ▶ ‘한편’이라는 표지와 함께 장면이 전환됩니다. 갑자기 긴장 상황이 등장합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과 앞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상이 마땅한 사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처리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A]**

승상 주연이 태후께 가만히 여쭙기를,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중백의 죄를 사해 문죄하라 하고 오 소저를 만 리 노국에 실어 보내어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니,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노국 세자도 절색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계교가 기특치 아니하리오.”

- ▶ 승상 주연이 처음 등장합니다. 태후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가만히(은밀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계책입니다.
- ▶ 주연의 계책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 중백의 죄를 사면 → 사신으로 보냄 (<보기>의 공적 명분)
  - 오 소저를 노국에 보내 세자의 후궁으로 삼음 (<보기>의 사적 목적)
- ▶ 여기서 오 소저 = 현요임을 확인합니다. 앞에서 현요의 부친이 오 상서였습니다. 오 상서의 딸이니 오 소저입니다.
- ▶ 주연은 이것이 ‘두 쪽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공적 문제(사신 파견)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군주의 눈엣가시인 현요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기>와 붙여읽어봅시다. 공적 명분과 사적 목표가 맞물리는 양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계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 도모하라!”

주연이 말하기를,

“하교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리이다.”

- ▶ 태후와 군주 모두 주연의 계책에 동의합니다. 그 결과 주연은 그 ‘계교’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계교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장면6]**

주연이 이튿날 조참에 출반하여 아뢰기를,  
“제국 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대신을 보내어야 반드시 천조를 욱 먹이지 않고 후환을 없게 하리니,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 하시나이까?”

상이 이르시기를,

“짐의 생각이 또한 그러하다. 경등이 천거하여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 ▶ 계책을 이제 공적인 조참 자리에서 실행에 옮깁니다. 주연의 발언은 공적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신의 자질을 논하는 척하면서 상이 스스로 책임자를 천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도 동의하며 천거를 요청합니다.

주연이 다시 부복하여 아뢰기를,

“감옥 죄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하나이다.”

- ▶ 주연이 드디어 중백을 지목합니다. 계책이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공적 명분(소임에 적합한 인물)을 내세우면서 사적 목적(중백을 현요에게서 떼어놓음)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즉일에 사면하시고, 상서를 복야에 승품하사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 ▶ 여기서 호칭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중백 = 상

서'입니다. 사면과 동시에 품계가 올라 상서에서 '복야'로 승품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중백=상서=복야'입니다.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태후의 뜻을 승순하여 죄를 내리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품계를 더 높이 올렸으니,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 서술자가 직접 상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확실히 고전시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군요. 태후는 중백을 내치려 했지만, 상은 오히려 중백의 품계를 높여버립니다. 주연의 계책이 태후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눈치채고 넘어갑니다.

### 32.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③ ㉠: 새로운 정보를 접한 '심 부인'의 반응이며, 거둬지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발언으로 이어지는군.
- ▶ ㉡의 주체가 심 부인인지, 그 반응이 새로운 정보를 접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어지는 발언이 거둬지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것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장면기]

삼인이 사은 퇴조하니, 심 부인이 ㉠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 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또 이제 너를 만리타국에 보내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회포를 어찌 참으랴 말인가?”

- ▶ 심 부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중백에게 '너'라고 부르며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중백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서 속으로 보내 놓고'는 중백이 감옥에 갇혔던 상황을, '만리타국에 보내어야 하다니'는 방금 결정된 사신 임명 소식을 가리킵니다. 즉 심 부인은 사신 임명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의 반응을 보이며, 감옥에 이어 또다시 닥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③번은 적절합니다.

#### [B]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자친을 오래 떠나는 정은 간측하오나 소자의 대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로소이다.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함은 가중에서 일어난 바요,

- ▶ 어머니 심 부인을 위로하며 말을 꺼냅니다. '자친'은 어머니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소자'는 자식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위로이지만 '다만'으로 이어지며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군주가 만든 일이옵니다. 이번엔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심도 주연과 태후의 계교이니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 틀림없이 오 씨를 참살할 뜻이오니, 어찌 분완치 않으리까. 군주가 제가 출행하기 이전에는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 ▶ 중백이 [A]에서 제시된 주연의 계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3번 문제와 연결될 겁니다.
- ▶ [A]에서 주연이 '두 쪽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며 공적 명분으로 포장했던 계책이, [B]에서 중백의 시각을 통해 그 숨겨진 의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기>와 붙여읽어봅시다. 중백이 사신으로 떠나면 현요가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기>가 말하는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이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 32.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④ ㉠: '상서 가중'을 관찰한 '보모'의 반응이며,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 ㉠의 주체가 보모인지, 상서 가중을 관찰한 결과로 나온 반응인지, 이어지는 행위가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군주는 종래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 보모를 보내어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 보모가 상서 가중에 와서 기색을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으므로, 보모가 ㉠ 대회하여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대내에 들어가서는 여쭙기를,

- ▶ 군주가 직접 나오지 않고 보모를 대신 보내 중백의 집안 분위기를 살피게 합니다. 보모가 관찰한 결과는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백의 집안 사람들이 군주의 방문을 기꺼이 반긴다는 뜻입니다. 보모는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락을 모르는가보다라고 판단합니다. 보모의 판단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염두에 두고 다음 장면을 읽어 나갑시다.

“상서의 집 사람이 다 청안 우매하여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숙부께 뵈오려 가 계시터이다.”

- ▶ 보모가 군주에게 보고합니다. '청안 우매하여 기미를 모른다' 중백 집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④번 선지로 돌아가봅시다. 선지는 보모가 '이들의 숨은 속내를 전달한다'고 했지만, 보모는 집안 사람들이 기미를 모른다고 전할 뿐입니다. 숨은 속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④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④

#### 교훈(선지 판단)

시험장에서는 선지 판단 원칙인 '사실관계'로 바로 가는 것이 간단합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면, 애초에 보모는 중백 집안 사람들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했기에 숨은 속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 32.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⑤ ㉡: '군주'를 본 '가중의 상하'의 반응이며, 본심을 감춘 언사로 이어지는군.
- ▶ ㉡의 주체가 가중의 상하인지, 군주를 본 반응인지, 이어지는 언사가 본심을 감춘 것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군주가 당초에 궁에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엄위한 기상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기실은 상서가 원행해야 하므로 아니 나옴이 도리가 아니요, 또 상사 일념에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자 하여 상서 부중에 나왔다. 가중의 상하가 군주를 보고 ㉡ 괴로워하고 무이히 여기며,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었다.

- ▶ ㉡의 주체는 가중의 상하이고, 군주를 본 반응입니다. 속으로는 괴로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억지로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본심을 감춘 언사로 이어지는 것도 확인됩니다. ⑤번은 적절합니다.

33. 구간 유형은 선지부터!

■ 정답해설

- ① [A]에서 주연은 태후에게 중백을 사신으로 보내고 현요를 노국으로 보내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계책을 제안합니다. [B]에서 중백은 이 계책의 이면을 꿰뚫어, 자신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결국 현요를 참살하려는 숨겨진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A]의 제안과 [B]의 분석이 대응됩니다.

● 지문독해 FRAME

문제화

소재에 대한 평가는 작품의 맥락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평가원은 지문에 있는 시어를 선지에 그대로 끌고 와서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럴싸한 선지를 만들어냅니다. 주의합니다!

■ 오답해설

- ② [B]에서 [A]의 계책의 숨겨진 의도가 폭로됩니다. 효과가 증명되는 장면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B]에서 계책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제시되거나 구체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백은 이면을 분석할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A]에서 제안의 배경은 군주와 태후의 사적 목적입니다. 제나라의 반란 상황은 주연이 조참에서 공적 명분으로 활용한 것이지, [A]에서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A]에서 인물의 지위 차이로 갈등이 촉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A]는 주연이 태후에게 계책을 올리는 장면일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4. 연결하며 읽고, 바로 판단한다.

■ 정답해설

- ②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도 폐하지 못한 다'고 말한 것은, 중백과 현요가 성례하면 중백이 군주를 멀리하고 현요에게 드나들 것이고, 이로 인해 참화가 닥친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성례를 강행했을 때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공적 명령보다 혼약을 우위에 두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의 결론은 성례를 하지 말자는 것, 즉 <보기>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보기> 범주화

<보기>의 범주는 지문을 읽기 전에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인물의 발언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그 발언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맥락 전체와 연결하여 판단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바꿔치기

선지가 인물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의심합니다. 발언 자체는 맞지만, 그 발언의 의도나 결론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할 수도 있으니깐요.

■ 오답해설

- ① 군주의 말이 태후를 거쳐 황제에게 전달되고, 황제가 중백에게 혼인을 명령합니다. 군주라는 황실 인물의 사적 감정이 황실 권력을 타고 내려와 중백의 사적 관계에 개입하는 양상이 드러나므로 적절합니다.
- ③ 부인이 제안한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은 현요가 성례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적 명령에 맞서 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현요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적 판단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주연은 제나라 사신 파견이라는 공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중백을 현요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군주와 태후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계책을 제안합니다. 공적 명분과 사적 목표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중백이 사신으로 임명되어 제국으로 떠나면 현요와 물리적으로 분리됩니다. <보기>의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이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킨다'는



구조와 대응되므로 적절합니다.

### 31. 누가/누구에게/무엇을

#### ■ 정답해설

- ② 부인은 현요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의 발언은 정반대입니다. 현요가 성례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요가 그 처지에 만족하는지 여부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 지문독해 FRAME

##### 누가/누구에게/무엇을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가지고 선지를 냅니다.  
주의하세요.

#### ● 선지판단 FRAME

##### 사실관계

주체와 대상을 쪼개서 하나씩 따지고, 최대한 단순한 근거로 그어야 합니다!

#### ■ 오답해설

- ① 종백이 한사코 사양했음에도 상이 시랑과 태후를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일했다는 내용이 지문에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주연이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대신을 사신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고, 상이 '짐의 생각이 또한 그러하도다'라고 답하며 동의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주연이 종백의 사면을 건의했고, 상이 이를 수용한 후 기존의 상서에서 '복야'로 품계를 더 높이 올렸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군주가 종백의 질책을 염려하여 나오지 못했지만, 원행 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결국 상서 부중에 나왔으므로 적절합니다.

## 3모가 끝난 지금, 6모 전까지 해야 할 것

3모를 그냥 넘기면,  
6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무료특강에서는 3모를 통해 해설지에서 전달되지 않는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6모 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아래 수요 조사란에 작성해 주세요.

일시 : 4월 5일(일) 오후 8시~10시

### 무료 특강 '3모 도약' 신청 링크



<https://forms.gle/fWuZ4hHyKhJa8hBaA>